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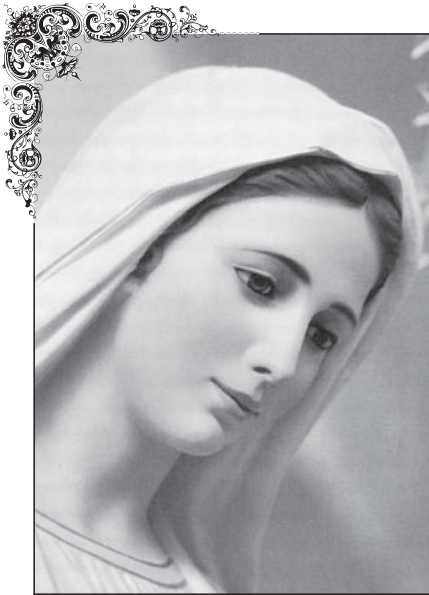
MEDUGORJE

평화의 모후



2017 제 75 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개로 부르도록 허락하셨다.
 어린 아이들아, 너희는 모두 그 은총을 향해 너희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리하여,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서 평화와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다오.
 이 지상에서의 너희 삶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란다. 기도하여라. 너희가
 천국과 천상을 간절히 열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며, 내 아들 예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전구하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7년 5월 25일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

	3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4 평화의 모후, 그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메주고리에의 교황 특사, 호세르주교
	7 2017년 6월 2일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8 메주고리에 발현에 대한 조사위원회
	11 엄마의 평화와 사랑의 축복을 주고 싶구나 리비오 판자가 신부
	14 성체의 어머니
	18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3명의 어린이와 미카엘 대천사 성체를 모시고 온 미카엘 대천사 파티마 목격증인들의 죽음 태양의 기적 파티마의 세가지 비밀 티 없으신 성모성심 봉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저격당하다 제 3의 비밀 파티마 성모의 3번째 비밀은 종말이 아니다. 성모님의 약속 파티마 구원경의 의미와 묵상
	30 성모님과 스키플라
	32 성모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35 메주고리에 단식의 날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42 평화의 모후 선교회 사명
	43 후원회원 명단 및 십터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과 구원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 신부님을 위하여...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의 영혼을 위하여...
- 주님께 아들 프란치스코와 스테파노를 봉헌합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의 안식과 가족들의 평안을 위하여...
- 아무도 기도해 주는 이 없는 불쌍한 연옥영혼들을 위하여...
- 성모님, 냉담중인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소서.
- 000의 사명과 신앙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소서.
- 프란치스코 영혼의 안식과 가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 온 세상에 주님 말씀이 전파되고 생활화 되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 00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은총 영육간의 은총을 주소서.
- 주님, 마리아와 요셉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 딸과 사위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어 성가정으로 이끌어 주소서.
- 아프리카 선교 사명중에 주님 곁에 간 딸 데레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 성모님, 평화의 모후 기도 회원들 가족들과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 주님, 선우창원 켄스턴, 선우폐기 마가렛의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소서.
- 모든 사제들이 티 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안에서 거룩한 사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 Homeless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 하루 속히 집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사명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 냉담중인 딸과 사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교회안에서 성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소서.
- 하느님을 믿지않는 남편과 위기에 있는 저의 결혼생활을 위해 성모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이들을 인도 해주소서.
- 성모님,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성지순례단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기도지향을 위해 기도해 주소서.
- 성모님, 남편의 도박과 유혹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을 보살펴 주시어 성가정으로 지켜 주소서.
- 성모님, 그리스도의 수난 24시간 묵상 고리기도 회원들의 기도지향을 봉헌하오니 기도해 주소서.
- 예수님,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사목을 하시는 김베드로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소서.
- 예수님, 루가늑병을 앓고 있는 남편의 치유와 이 시련을 당신의 사랑으로 견딜수 있는 힘과 용기를 청합니다.
- 파푸아 뉴기니에 십자가와 파티마 성모님상과 묵주기도 전파 선교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인자하신 주님, 성모님의 지향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000를 보살펴 주시고 은총 중에 이끌어 주소서.
-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메시지 전파를 위해 일하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지도신부님과 봉사자, 후원회원들을 축복하시고 보살펴 주소서.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매일 미사와 매월 첫 토요일 성모성심 미사, 매월 성모송 1000번, 봉헌과 미사 및 성지순례때, 모든 미사를 봉헌해드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그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2017년 4월 1일 메주고리에의 교황 특사, 호세르 주교의 강론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름다운 크로아티아어를 아직 배우지 못한 제가 불어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다섯번째 일요일을 맞아 제대앞에 모여 있습니다. 부활까지 2주를 남겨 놓은 지금, 앞으로 일주일만 지나면 성지주일일 맞게 될 것이고, 이 성주간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부활절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하느님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세가지 관점, 즉 세가지 부활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첫번째는 역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서, 팔레스타인의 거룩한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에제키엘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그분의 탄생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곳에서 너희를 끌어 내겠다." 그리고 또 한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리라" 그것은 메시아의 출현을 미리 내다본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셨다는 알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의 기본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두번째 관점은 사순시기를 이끌어주는 전례입니다. 사십 일동안 우리는 기도하였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며, 단식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단식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좀 더 관대해졌고,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영성이 이곳에 잘알려져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례를 따르는 이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세번째 관점에 도착하도록 준비시켜줍니다.

부활은 세번째 관점이며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위해 살고 있고,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기 위해 죽음을 지나 갈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의 마지막 목표는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종착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정동안에도 부활해야 합니다. 부활의 한 부분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지만, 또한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더욱 심각하며 훨씬 더 위협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회개할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

제가 바라는 것은 성모님을 여러분 삶의 모후로 삼는 것입니다.

느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분은 사랑의 길이십니다. 우리에게 내적 평화와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자비로운 사랑이십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네, 주님,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마음을 열어주고, 고백성사를 통해 마음이 열려지고 깨끗해 졌을 때, 성령과 거룩한 삼위일체로 채워집니다. 그리스도는 묵시록을 통해, 우리들 마음의 문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께서 우리 마음안에 머무르신다면 그곳은 하늘님의 성전, 그분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복음 말씀을 읽을 것이고, 예수님의 적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틈을 놓아 매일 매일 더욱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성모님은 항상 그분의 곁에서 함께 고통을 겪으시며,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성모님의 매우 강한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분이 겪으신 고통을 성모님의 칠고로 표현합니다. 성모님은 일생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십자가 아래까지 이르는 수난의 길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가 되어 최고조를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4처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만나는 장면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성모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하셨다고 전해 주고 있습니



다. 그리고 아드님의 찢겨진 육체를 받아 직접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전승은 마리아 막달레나보다 성모님이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각자의 삶과 부활을 바라보면, 그곳에 성모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따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시련과 고통에 참여하십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영적현존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특히 이곳에서, 평화의 모후로 부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대략 12가지 호칭을 부를 때, 마지막에 여왕, 평화의 모후로 부릅니다. 마리아 그분은 여왕이십니다. 묵주기도에서 영광의 신비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을 하늘과 땅의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당신 아드님 왕국의 특성에 참여하십니다. 성모님의 현존하심은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며 우리는 모든 곳에 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안에서 그분의 끊임없는 현존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후, 그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므로써 가정, 사회, 국가안에서 평화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는 '이미 제 3차 대전의 일부가 일어 났으며, 가장 끔찍한 것은 시민 전쟁으로, 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21년 동안 아프리카 르완다에 살았습니다. 1982년에는 성모님께서 그곳에 발현하셔서, 르완다의 대량학살이 일어나기 전 부터, 그것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기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현존하심, 그것이 천상의 개입입니다.

지 못했습니다. 결국 3개월 동안 백만명이 인종차별의 대량 학살로 희생되었습니다. 르완다에서의 성모님 발현은 이미 알려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을 "세상의 어머니", "영원한 말씀의 어머니"로 소개하셨습니다.

메주고리에서 매우 굳게 믿고 있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 공경은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파괴의 세력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오늘 날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기거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인류는 분열 안에 있습니다. 가정안의 분열, 사회의 분열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상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현존하심, 그것이 천상의 개입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황님의 특사인 저는 교황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마음의 회개를 통해 전세계에 평화를 전합시다!

메주고리예의 가장 큰 기적은 이곳에서 있는 고백성사입니다. 고백성사는 자비이고 부활의 성사입니다. 저는 약 50명의 사제들이 하느님의 백성들에게 고백성사를 주고 있는 오늘, 고백성사를 주고 있는 모든 사제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 년 동안 벨지움과 프랑스 등, 서구 여러 국가에서 사목을 해 왔지만 그곳에서는 고백성사가 사라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 개개인의 고백성사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메말라가고, 인간의 마음은 닫혀지고, 악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복음과 회개와 평화를 전하는 사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믿지 않는 이들은 아직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라는, 이곳에서 제가 들은 말처럼,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화된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 본당을 맡고 있는 프란치스칸 형제들로부터, 전세계 80 개국

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순례를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부르심은 세상 끝까지 전해 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어머니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의 증인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http://www.medjugorje.hr> 에서〉

〈교황청으로부터 메주고리예의 특사로 임명된 헨리크 호세르 대주교가 이탈리아 웹사이트 La Fede Quotidiana 와의 인터뷰〉

메주고리예 특사로 임명될 것을 예상했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호세르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왜 자신을 임명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교회안에서 '보수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을 언급하자 호세르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내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기본으로 하는 교리와 말씀 그리고 교서등에 충실하려는 성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폴란드 교회의 고위 성직자인 호세르 대주교는 폴란드사람들이 메주고리예 발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폴란드의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매우 강합니다.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지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예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 일들은 그 무엇에 대한 간접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황청에서 파견 된 특사로서 신학적인면이나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맡은 임무는 사목적인 차원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수 많은 곳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믿습니다.


그는 목격 증인들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목격증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언급하지만 그들에 관한 일은 내가 관여 할일이 아닙니다."

또한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던 것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매우 깊은 분이십니다. 메주고리에 발현지에 대해서도 그분 같은 생각을 하신 것은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르 대주교는 가정의 가치관과 보호를 언급하며 마리아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혼배성사를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메주고리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성체조배와 단식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사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주고리에의 열매'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호세르 대주교는 '특사'의 역할은 사목적인 현안에 한정 된 것이며 교의나, 발현의 진위성에 대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였다.

"영혼들의 열매와 관련하여, 나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열매란 성사생활과 회개, 삶의 변화, 미사참례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메주고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사목적으로도 그러한 것이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을 때, 메주고리에 성모님께 기도했다는 소식에 대해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병을 앓았을 때 저는 성모님께 도우심을 청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수 많은 곳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믿습니다." (호세르 대주교는 2008년 전 대주교로 임명되기 전, 1975-1996년까지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선교 활동을 했으며, 같은 시기에 성모님의 발현이 있었다.) / Themedjugorjewitness.org - 역: wisd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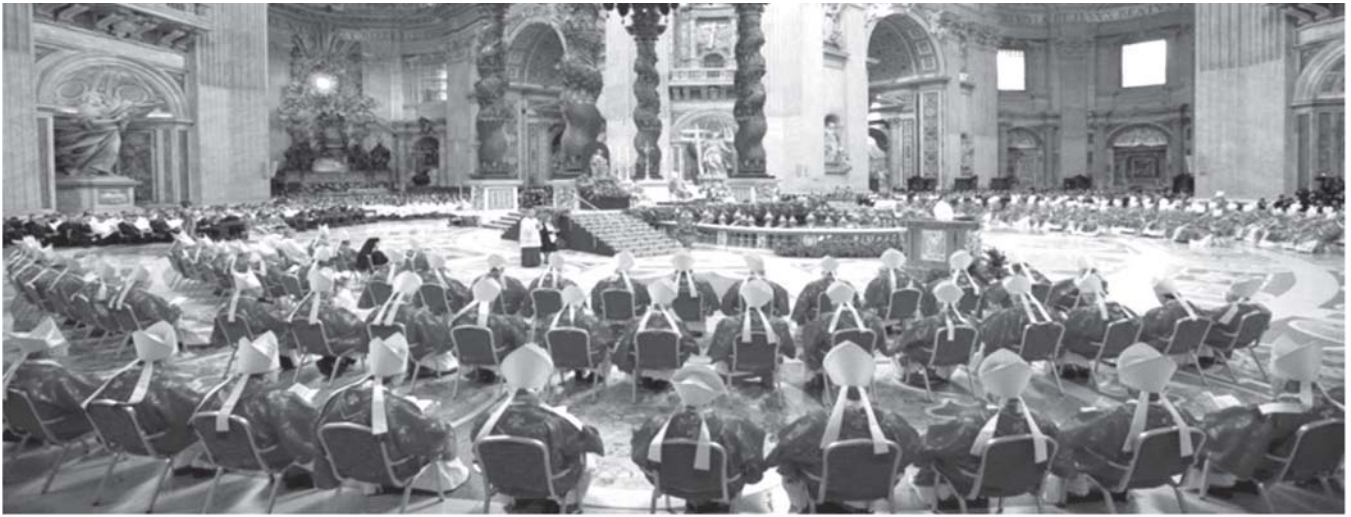
2017년 6월 2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그동안 발현해 왔던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곳에서도 너희들을 기도하라고 부르고 있다. 내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아직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죄악에 대항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또한 너희들과 교회에 힘을 주는 성령과 사랑을 갖도록, 내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봉헌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아들 예수님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그분은 가까이 느끼며 체현한 사랑이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다. 내 아이들아, 준비하여라. 지금은 큰 전환점이 될 시기이다. 그러기에 내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너희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야 할 길, 복음 말씀의 길을 보여 주고 있다. 내 사랑의 사도들아, 지금 이 세상은 너희가 팔을 들어 하늘나라를 향하여, 내 아들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음의 순결과 겸손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내 아들 예수님께 의탁하며, 너희들은 언제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내 사랑의 사도들아, 어머니 내 성심은 너희가 세상의 작은 빛들이 되어, 어두움이 지배하는 곳을 밝혀 주고, 기도와 사랑으로 참된 길을 보여주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단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고맙다"

(www.qpmm.org 평화의 모후 선교회 웹사이트에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발현 목격증인 마리아나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에 대한 교황청 심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신비의 부분이 풀린다.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재임시에 지명하신 "메주고리에 심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이 교황청 언론지인 "바티칸 인사이더" 2017년 5월 18일자에 중요한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루이니 추기경이 이끄는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 심사위원회는 일단의 신학자, 심리학자, 마리아론학자 그리고 주교 및 추기경들로 구성된 17인으로 이 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메주고리에 성모 마리아 발현에 대한 진위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에 "루이니추기경의 심사위원회"는 메주고리에 관한 조사의 결과를 현 프란시스코 교황께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년 동안의 심사 및 연구 끝에 메주고리에서의 초기 7일간의 성모 발현이 "신뢰할만 함"으로 판단되었다고 보고된 내용의 기사이었기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이 내용은 영국의 "가톨릭 헤럴드지"에 의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뢰할만 함"이란 말은 "믿을수 있는", "근거가 있는", "설득력있는"의 뜻으로도 정의가 됩니다. 교황성하께서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판정하실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번이 없으면 이 초기 발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사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추천하

였듯이 메주고리에 성모 마리아 발현지는 각 교구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순례가 허용되는 슈라인(Shrine)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년 2월에 교황청에서 메주고리에 파견 된 교황 특사 호세르 핸드릭 주교는 이 보다 더 강력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최종판결에 참석한 심사위원회들은 메주고리에의 초기 발현 현상에 관하여 찬성 13명, 반대 1명, 1명은 판정을 유보함으로써, 13대 1의 표결 결과로 "메주고리에서의 성모 마리아의 최초 발현은 신뢰할 만함"으로 판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심사위원단의 권위있는 전문가들과 관련된 성직자들은 메주고리에 현지에서 상당한 기간을 머물며 성모 발현의 관련 목격자들을 심도있게 관찰하고 조사하였습니다. "바티칸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 현상을 "초기의 7 일간 발현"과 그 이후 전개된 상황들 사이에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두 단계로, 즉 1981년 6월 24일 부터 7월 3일 사이에 일어난 "최초 7번의 발현"과, 이후 일어난 모든 발현들로 나누어서 판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초기 7일간의 발현에 있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삶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여라

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초기 7번의 발현 이후에 일어 난, 추후의 발현들에 대하여 부정하는 판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린 위원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또한 그중 일부 발현들이 취급되어져 온 방법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주요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초기 7번의 발현은 파티마나 과달루페와 같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유명한 역사적 발현보다 더 많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첫 7번의 발현에 대하여서는 위원회가 확신을 갖는 반면, 1981년 7월 초 이후의 발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이점은 우리를 당혹스럽게도 하고 또한 흥미를 갖게도 합니다.

왜 7월 3일이 기준이 되는지요?

그 첫 주간동안 6명의 목격증인들은 성모님을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목격했음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동시에 본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발현들의 진정성이 확고해지며, 이 일치성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의 이러한 신중함은 다음과 같은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에 대한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파티마 성모님 발현중 1917년 5월에서 10월까지 6번의 발현중에 3명의 목격증인들 모두에게 동시에 목격



1981년 발현초기 성 야고보 성당에서 요조신부와 목격증인들

된 것을 인준하고, 3명의 목격증인중에 어린 나이에 죽은 프란치스코 (9살, 1908-1919) 희야친따 (7살, 1910-1920)의 에 97세에 죽은 루시아 도스 산토스 수녀(1907-2005)의 개별적인 신비스런 체험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시도이지만 비판론자들은 심사위원회가 7월 3일 이후의 발현들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신중하려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에 발현 첫번째 주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공산당 관리들과 현지 경찰들은 메주고리에의 발현상황에 개입하여 "발현산"에서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여러번에 걸쳐 목격증인들을 다른 곳으로 끌고가서 분산시켰기 때문에 목격 증인들은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각각의 발현이 일어났습니다. 한번은 경찰이 공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성모님의 발현이 일어 난 적도 있었습니다. 무신론적 정부는 이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 대중에게 끼칠 영향에 대하여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발현이 일어난지 4일째 부터 공산 경찰 당국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성모님의 발현들은 그 발현이 일어난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여러지역에서 가톨릭 신심이 되살아 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7월 1일, 마을 사람들은 공산당원 및 경찰들과 함께 메주고리에에 있는 학교에서 회의를 갖도록 소환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저널리스트 메리 크레이그는 그의 저서에서 "목격증인들은 발현산 및 교회에 갈 수 없도록 금지 당했다"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만일 목격증인들이 발현산에 다시 가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것으로 판정하고, 이후로는 모든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산당원들은 그들의 부모들을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공산당 체제가 자주 사용하는 특유의 인신공격에 시달리기도하였습니다."라고 크레이그는 전했습니다. 하버드대 출신 변호사이며, 프란시스칸 대학교 총장인 마이클 스캔런 신부가 출간한 한 책에서, 메주고리예를 잘 아는 스페토잘 크



1981년 발현초기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증인들
비스카, 야곰, 미리아나, 이반카, 마리아, 이반

랄리에비치 신부는 "7월 3일 이후에는, 각 발현에서 일어난 아이들과 성모님 사이의 특정한 대화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토잘 신부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많은 군중들 때문에, 발현은 언덕위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곳에서 성모님께서 1981년 8월 12일까지 매일 발현하셨다. 이 후 정부 당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발현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따라서, 6명의 목격증인 아이들은 성모님의 발현지를 자신들의 마을 비야코비치와 숲속 및 들판으로 옮겼으며, 주민들은 성모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곳에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정부 관리들이 소집되었다." 6일째 되는 날, 이 어린이들은 당국에 의해 치트룩시로 소환되었고, 다시 모스타르시(지방 행정관청이 있는 곳)의 "닥터 사페트 무지치 병원"의 신경정신과로 보내졌다. 그들은 이 6명의 어린 목격증인들이 정신질환자이거나 환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어린 목격증인들은 철저한 의학조사를 위해 모든 검사를 성실하게, 거리낌이 받았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하였으며, 담당의사인 물리야 드쥬드다 박사는 목격증인들이 건전하며 건강하다는 진료의 판정을 내렸다."라고 스페토잘 신부는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당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각 목격증인들의 발현 내용들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는데, 이것은 파티마에서 첫번째 주간 동안 현지 당국이 발현 사태에 개입

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파티마에서와 같이, 메주고리에 목격증인들은 일시적으로 구금되었으며, 이어서 공산당국은 체포된 아이들을 노골적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참조: 첫 7일 동안 실제로는 7번 이상의 발현이 있었다.) 이로써, "왜 첫번째 주간의 발현만 신뢰함에 해당 되나?" - 하는 작은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억압 및 이후의 일치된 목격증인들의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성모님은 발현 첫 해 동안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성모님의 계획에 대한 방해를 시도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어린 목격증인들에게 경고하시며 기도와 희생을 당부하셨는데, 이는 성모님께서 전 인류의 회심을 위하여, 교회를 구하시고, 징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온 인류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M**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기도하며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너희를 부른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있다. 또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희에게 평화의 길과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보여주려고 이곳에 내가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있다. 그러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며,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부탁한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사탄은 매우 강하다. 그러기에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너희 기도를 나에게 봉헌해주기를 부탁하고있다. 너희 삶으로 증거하여다오. 그리고 너희 삶을 세상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고마워 하고있단다. 너희는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하면, 사탄은 너희를 조금도 해칠 수 없단다.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너희를 지켜 주시기 때문이란다. 기도하여라.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 주는 표시로, 언제나 목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8년 1월 25일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

< 출처 : Spirit Daily의 Michael H. Brown 의 기사내용을 번역 참조하였습니다.>



어린자녀들아, 엄마의 평화와 사랑의 축복을 주고 싶구나....

2016년 6월 25일 성모님 발현 35주년 메시지와 리비오 판자가 신부의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의 선물에 나와 함께 감사를 드리자. 어린 아이들아, 지상에서 너희의 삶을 유익하게 해줄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여라. 오늘, 이 은총의 날에 나는 너희들에게 엄마의 평화와 사랑의 축복을 주고 싶구나. 나는 내 아들 예수님께 너희를 중재하고, 항구하게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와 함께 나의 계획을 실현 할 수가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16년 6월 25일 성모님 발현 기념일메시지)

발현 기념일인 6월 25일 메시지는 네 마디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 세 마디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여라.'

두 번째, '기도하여라.'

세 번째, '삶으로 살아라.'

네 번째, '인내하라고 초대한다.'

세 개의 권고와 한 개의 초대에서 네 개의 기본적인 동사가 나옵니다. 즉, '감사하여라, 기도하여라, 삶으로 살아라.' 마지막으로 '인내하여라.'입니다. '감사하여라.'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이유는 항상 다양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얼마 전부터 35년 동안 매일 쇠신되는 그분의 현존이라는

큰 선물을 반영하고 계시며, 이런 선물을 익숙한 습관으로 받아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이쪽저쪽으로 흔들대는' 이 세대를 위한 너무나 큰 선물이고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길을 잃었고 방향을 잃었다.'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메주고리에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 아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인 예수님입니다. 35주년의 기념일 기간을 지내면서 성모님의 현존에 고마워합시다.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시려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청하시고 허락을 얻으셨다 하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당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내 계명들을 지킨다."

스스로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셔서 이곳의 현존을 더 연장하셨는데 그 이유는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것, 기도하러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교회와 온 세상에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악의 힘이 뒤엎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현존이라는 은총을 인식하고 살도록 노력합니다. 어느 한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인가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찾아오지 않게 될 때, 너희는 나를 그리워하고 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언제인가 이런 순간이 오겠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그 시간이 조금 더 늦게 오길 바랄 뿐입니다. 또 성모님께서 모든 인류를 준비시키는 당신 계획을 완성하시게 되었을 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라."

두 번째 명령형은 "기도하여라."입니다. 성모님은 기도하라고 초대하십니다. 매년 6월 25일 이반카 발현증인에게 발현하시는데 1985년 이후로 매일의 발현이 끝난 상태입니다. 성모님께서 이반카에게 10가지의 비밀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상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성모님은 이반카에게 오셔서 아주 간략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라!"

이런 강한 권고의 말씀은 올 6월 25일 메시지에서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또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기도 안에서 항구하여라." 기도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며,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기도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성자 예수 성심 앞에서 중재할 수 있습니다. 악이 아무리 날뛰더라도 기도는 성모님께서 영혼의 평화, 사랑, 구원이라는 당신 계획을 실현하게 하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아, 나는 내 아들 예수님께 너희를 중재 하고, 항구하게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와 함께 나의 계획을 실현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은 성모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초임이라 생각해봅니다. 물론 35년 동안 성모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파티마에서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즉 러시아가 회개할 것이고, 공산주의가 무너질 것이며, 모든 동유럽의 교회가 새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일부분을 실현하셨습니



다. 성모님께서서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많은 부분을 쇠신하신 것을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은 당신이 심히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하느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25일 성탄대축일 성모님께서서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마리아 발현증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성탄 날 아기 예수님께서 품을 일으켜 세우시며 엄위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평화다, 내 계명들을 지켜라!" 얼마 전에도 성모님은 하느님의 계명들을 지키도록 상기시켜주셨습니다. 규율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교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반복해 언급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내 계명들을 지킨다." 성 요한은 첫 서한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1요한 2,3-5)고 하십니다. 하느님의 계명들은 생생하고 살아있으며, 모든 계명들은 사랑의 계명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계명들을

이 은총의 날에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모성적 평화와 사랑의 축복을 주고 싶구나.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잊혀 사용되지 않는 것들일지라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축제일(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것,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것,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현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나는 너희 주 하느님이다." 그런데 인간은 반대로 자기 자신이 하느님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실생활 안에서 이런 계명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예수님을 따르려는 부자청년에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계명들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실천하는 것은 죄 중에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때 더욱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기도와 믿음이 촉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도 요구되는 것이고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어제 독서를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즉,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이었는데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예언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과 거리를 샅샅이 뒤져보아라. 정의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찾아낸다면 내가 그를 보아서라도 내 뜻을 거두고 예루살렘을 구하리라!" 저는 이 구절에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위로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누군가 하느님의 친구가 되는 단 한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아, 지상에서 너희의 삶을 유익하게 해줄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여라. 오늘, 이 은총의 날에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모성적 평화와 사랑의 축복을 주고 싶구나."

즉 성모님은 자주 모성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의 강복과는 다른 엄마로서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강복은 구원자의 강복이지만 엄마의 축복은 사랑과

평화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전구하시며 협력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도와 성모님의 평화의 계획들이 구현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계획들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영혼들의 영원한 구원이며, 두 번째는 세상의 평화입니다. 미래의 인류 자체를 파괴하려고 사탄이 사슬을 풀고 자유롭게 휘젓고 다니며 이 시기의 마지막에 평화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구, 성실함과 항구함으로 성모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환자들도 자신들의 고통을 오롯이 봉헌하는 것으로 성모님을 도울 수 있고, 우리 모두도 매 일상의 노고와 수고, 작은 박해들, 자잘한 일상의 십자가들을 봉헌하면서 성모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과 용서, 자비가 이 세상에 내리도록 교황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대한 중재기도단을 만듭시다. 자비는 구해야 하는 것이고 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마르는 이 대지에, 풀풀 먼지가 일어나는 우리마음에 그 자비가 이슬처럼 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M**

(번역 및 녹취록 정리: 남 기옥 마르타)

Queen of Peace Missionaries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오세완 바오르로
 자문위원단 : 오세완 신부, Fr. John McFadden, 김한기 신부,
 :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홍연수 선교사
 웹관리자 : 남 미카엘라, 박 로사
 편집위원 : 남 미카엘라, 문 로사리오, 정 데레사, 박 로사
 최레지나

미국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한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719-2 백상 프라자 109호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성체의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님, 당신을 깊이 흠송하나이다. 또한 세상 모든 감실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쳐 드리오니,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능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워잡기 위함이나이다."

(330/ 1986년 8월 8일, 루비오(비첸자)
거룩한 묵주기도 합송 후 (성모님의) 육성 메시지)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흠송과 사랑과 보속과 감사의 사제 순례단이 되어 '성체'안에 계시는 예수께, 내 아들이요 내 하느님이신 예수께, 위로를 드리려고 이곳에 온 걸 보니, 내 마음 가득 기쁨이 넘치는구나!

지상의 모든 감실 안에 참으로 계시는 사랑의 현존이신 그분이, 허다한 내 자녀들과 특히 상당수의 내 사랑 하는 아들 사제들의 심한 무관심과 배은망덕에 둘러싸여 공허 속에 홀로 계시곤 하니 말이다! 예수 성심께 너희는 이토록 기쁨을 바쳐 드리니 고맙다. 그분은 흐뭇해 하시며 미소를 짓고 계신다. 너희에 대한 사랑에 겨워 어쩔 줄 모르시면서! 고맙다. 깊은 고통에 잠겨 있는 '천상 엄마'의 티없는 마음에도 너희가 기쁨을 안겨 주니까.

나는 '지극히 복된 성사의 어머니'이다.

그 이유는 나의 "예!"로써 '성부의 말씀'이 내 동정 모태에 내려오시는 강생 사건이 일어났다는 데 있다. 게다가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므로 나는 진정 '하느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내 협력이 구체적 형태를 띠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께 인성을 드렸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제2 위이시며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성부와 함께 계시는 성자(요한 1,2 참조)께서 시간속에 들어 오시어 사람이 되심으로써 너희의 참 형제가 되실 수 있었다. 인성을 취하셨기에 그분은 구원 사업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강생의 어머니'이고, 마찬가지로 '구속(救贖)의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강생의 순간에서부터 '십자가'의 죽

그분은 정녕 너희 모두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것이지만, 특히 십자가 위에서는 그분이 다만 하느님이시기만 했다면 하실 수 없었을 일을 인성을 지니셨기에 하실 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심으로써 성부께 당신 자신을 완전한 대속(代贖)의 제물로 바치셔서 성부의 정의에 합당한 보상을 드린 일이었다. 그분은 정녕 너희 모두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를 죄에서 속량하시어, 우리 첫 조상들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잃게 된 신적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열어 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내 동정 모태에 내려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오르시어 영구적인 사제직을 수행하시기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고난 받으시며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그 분을 바라 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특히, '사제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지극히 복된 성체의 엄마'가 되기도 한다. 이는 물론 내가 '제단'에서 이 신비로우신 분을 다시 낳기 때문은 아니다. 그 임무는 오로지 내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인 너희에게만 맡겨져 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너희의 그 임무는 엄마로서의 나의 역할과 아주 유사한 것이다. 너희 역시 거룩한 '미사'중에 성체 '축성 말씀'에 의해서 참으로 내 '아들'을 낳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동굴의 차디찬 구유에 그 분을 모셨고 너희는 차디찬 돌제단에 그분을 영접하지만, 너희도 나처럼 분명히 내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너희는 내 성자 예수님의 진정한 '어머

니'인 이 어머니에게서 각별한,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들이다.

그러나 나 역시 참으로 '성체의 어머니' 라고 하는 이유는 사제인 너희가 축성의 동작과 말씀을 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실제로 현존하시게 되기 때문이다. 빵과 포도주라는 예물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 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에 인간인 너희가 "예!"하고 응답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새로이, 또 실제로 현존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현존은 '강생 구속 사업'을 계속하시기 위함이고, 내가 그분께 드린 몸을 취하심으로써 이성을 지니게 되었기에 성부께 바치실 수 있었던 '갈바리아의 희생 제사'를 신비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은 당신 신성과 영광스럽게 되신 '몸'을 아울러 지니고 계시니, 그 몸은 바로 너희 천상 엄마에게서 받으신 몸 -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몸이다.

아들들아, 그분의 몸은 영광스럽게 되신 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어떤 몸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태어나신 몸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드린 그 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어 갈바리아에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 안장되었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바로 그 몸이다. 다만 부활하실 때 새로운 모습 즉, 영광에 싸인 신적 형상을 취하셨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마리아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체 축성의 순간에 낳는 그분도, 신성을 지니고 계시지만 영원히 '마리

오늘날, 티없는 내 성심에 가장 고통스러운 가시관이 되는 것은 성체께 대한 '모독'이다.

아의 아들'이다.

그러기에 나는 '성체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로서 항상 내 '아들' 곁에 있다. 내 몸도 '승천'의 특은을 입었으므로 지상에서나 '천국'에서나 마찬가지로이다. 세상 어느 '감실'이든지 예수께서 현존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나 나 역시 함께 있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된 몸은 시공을 초월한다. 즉, 이 조그 만 산(山)의 성당 감실에서 너희와 마주 계시는 예수님이 동시에 온 세상 모든 감실에도 현존하시듯이, 영광스러운 몸을 지닌 너희 '천상 어머니'도 여기와 다른 모든 곳, 그분을 모신 모든 감실 가까이에 현존한다. 그분께는 '내 티없는 성심'이 사랑과 흠숭과 감사와 끊임없는 보상으로 살아 고통치는 모성적 '감실'이다.

나는 기쁨에 겨운 '성체의 어머니'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성자께서 계시는 곳에는 성부와 성령께서도 항상 함께 계신다. 성부 오른편(마태 26,64 ; 마르 14,62 ; 시편 110,1)에 앉으시어 성령과의 친교 안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성체 안에서도 너희의 '축성 말씀'을 통해 현존하시게 된다. 즉, 이 '엄마 마음'에 안겨 감실 안에 모셔질 때도, 성자와 함께 성부와 성령께서 언제나 참으로 현존하신다. 성체 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께서 항상 현존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쁨에 겨워 황홀한 너희 '천상 엄마'도 세상 모든 감실 가까이에 현존한다. 또 모든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홉 개의 빛의 '합창단'을 이루어 지존하신 성삼위의 크신 능력을 여러 단계로 나타내듯 다양한 음조로 하모니를 이루며 그분의 '전능'을 찬송한다. 천사들의 이 합창단 주위에 모든 성인들과 복자들이 있고, 이들은 지존하신 성삼위께로부터 솟아나오는 '빛'과 사랑과 끊임없는 기쁨과 무한한 영광에서 영구적으로 갈수록 증대되는 지복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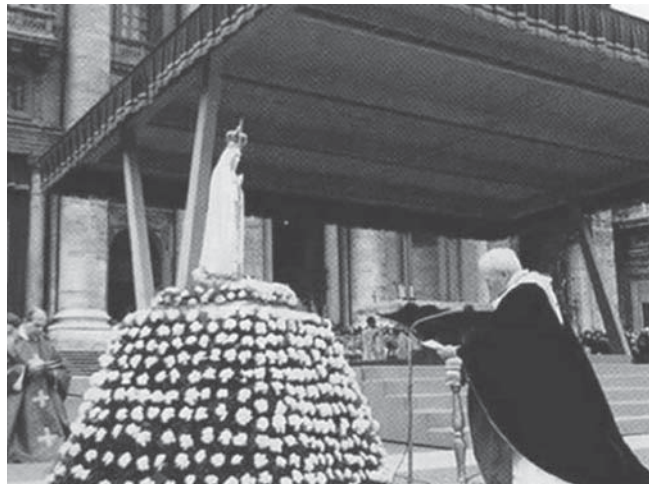
'천국'의 이 정점에까지 모든 '연옥' 영혼들의 깊은 갈망의 숨결, 정화의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가 올라온다. 그들은 천국을 향한 열망, 증대되는 사랑의 복받침을 느끼지만,

그 완성은 그들의 나약과 죄로 말미암아 진 빛 전체에서 서서히 해방되는 정도에 비례하므로 '사랑'이신 분에 의해 완전히 새로워질 때까지 계속된다. 이후 그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 주위에서 올려오는 천상 노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지존하신 성삼위께서는 천국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감실이라면 어디나 현존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곁에 있는 나는 따라서, 기쁨에 겨운 '성체의 어머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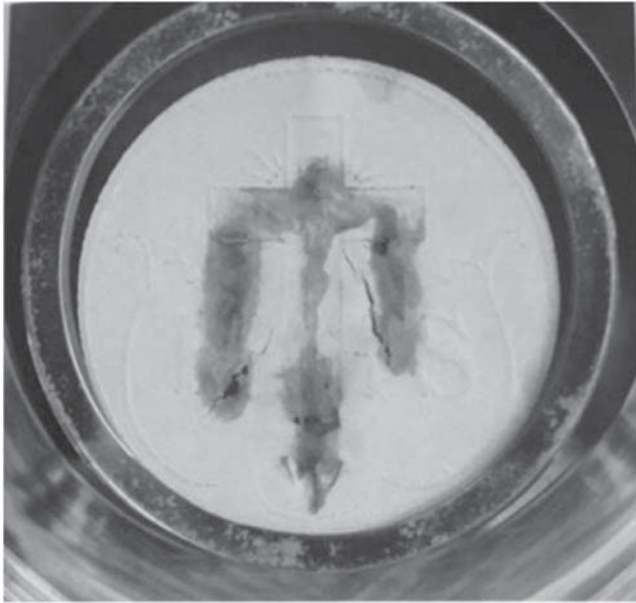
나는 고통에 잠긴 '성체의 어머니'이다.

사랑의 중심이신 '예수 성체'를 에워싸고, 살아 고통치는 '승리교회' 및 '정화 교회'와 함께, '지상의 교회', '순례교회', 곧 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인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들인 너희도 모두 모여야 한다. 천국과 연옥과 일치하여 영원한 흠숭과 찬미의 송가를 바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늘날, 텅 빈 공허와 극심한 무관심과 배은망덕이 감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 내가 파티마에서 예고한 시대가 되었거니와, 그 때 나는 내 발현에 앞서 파견된 '천사'의 음성을 통해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다. (이는 공중에 나타나신 성체 대전에서 바친 기도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님, 당신을 깊이 흠숭하나이다. 또한 세상 모든 감실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쳐 드리오니,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능욕과 모독과



주님의 성전인 교회는 우선 그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무관심을 기워 값기 위함이나이다..." 이는 바로 너희의 이 시대를 위해 가르친 기도이다. 예수께서는 오늘날 '공허'에 싸여 계신다. 이 공허는 특히 사제인 너희들에게서 기인한다. 너희가 사도적 활동을 할 때 흔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일들을 좇아 무익하게 걸도는 통에, 사제다운 하루 일과의 중심이 '여기' 감실 앞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현존하시는 감실, 누구보다도 너희를 위해 모셔져 계시는 감실이니 말이다.

그 분은 또한 내 수많은 자녀들의 '무관심'에 싸여 계신다. 그들은 마치 예수께서 감실 안에 계시지 않길라도 한듯이,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성당에 들어와서도 그들 가운데 참으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인 그분께 대한 의식이 없다. 게다가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흔히 성당 구석 자리에 모시곤 하는데, 마땅히 중앙에 모셔서 그분께서 교회 집회의 중심이 되시게 해야 한다. 주님의 성전인 교회는 우선 그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께 대한 수많은 교회의 태도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한다. 교회 집회에 사용되는 무슨 물건처럼, 변변찮은 구석 자리에 그분을 모셔 두니 말이다.

그러나 오늘 날, 티없는 내 성심에 가장 고통스러운 가시

관이 되는 것은 성체께 대한 '모독'이다. 이 시대에는 너무 나도 많은 사람이 모령성체를 하고 있다! 성찬식이 거행될 때마다 모령성체가 행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엄청난 상처가 얼마나 교회 전체에 퍼지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마비시키고 침체시키며 불순하게 만드는지, 또 얼마나 중병에 시달리게 하는지를 너희가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와 함께 너희 역시 한정없이 흘러 내리는 눈물에 잠기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 성심에 봉헌한 내 소중한 사제들과 자녀들아, 너희가 바로 오늘날의 순례교회 전체를 '성체'안에 계신 예수께 다시 불러들이는 '우렁찬 소집 나팔'이 되어야 한다. 오직 그분께만 교회의 메마름을 깨끗이 고치고 사막이 되어버린 교회를 새롭게 할, 살아 있는 물(요한 4,10 ; 7,38)이 솟는 샘이 있다. 오직 그분께만 은총과 빛의 '두 번째 성령강림을 향해 교회 를 열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이 있다. 오직 그분께만 쇠신될 교회의 거룩함의 원천이 있다.

오직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만! 그런즉 너희의 사목 계획이나 토론, 너희가 의지하고 믿는 인간적 수단들이 전체 교회에 완전한 쇠신력을 줄 수는 없다. 오직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뿐 이다. 그분만이 가난하고 복음적이며 순결한 교회, 모든 인간적인 짓거리로부터 벗어난 교회, 거룩한 교회, 너희 '천상 엄마'를 닮아 흠도 주름도 없이 아름다운 교회(에페 5,27 참조)가 되도록 이끄실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나의 이 메시지가 널리 알려지도록, 내 책에 앞서 수록된 메시지들 사이에 실어 주기 바란다. 그렇다, 전세계에 전파되기 바란다. 왜냐하면, 진정한 '어머니' -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의 기쁨에 겨운 어머니이지만 동시에 고통에 잠긴 어머니이기도 한 - 인 나의 티 없는 성심에 씌울, 사랑과 흠숭과 감사와 보상의 화관이 되라고, 내가 오늘날 전세계에서 너희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M**

(위의 내용은 "다락방 기도회" 창설자인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1973 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참고-가톨릭 출판사,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

나의 요청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며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 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워 갚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3명의 목격증인과 미카엘 대천사

1916년 봄,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미카엘 대천사가 9살의 루시아와 사촌들인 8살의 프란치스코, 6살의 히야친타를 찾아 왔다. 미카엘 대천사는 3번째 방문때에 아이들에게 성체와 성혈을 영해 주기도 했다. 루시아는 7남매 중 막내였으며,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는 남매이다. 그들의 부모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조차 없어서 아이들은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을 알지 못했다.

천사의 방문을 받던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다. 3명의 아이들은 카베소 산의 들판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다.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동안 점심을 먹은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했다. 아이들은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놀고 있었다. 평화롭게 놀고 있던 중, 먼 북서쪽에서 날씨가 흐려지며 비가 내리자 아이들은 서둘러 양떼를 몰고 언덕아래 비탈 길에 있는 동굴에서 비를 피했다.

얼마 후, 아이들이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갑자기 동쪽

올리브 나무들 주변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 와서 나무들이 몹시 흔들리고 가지들 위로는 눈보다 더 희고 투명한 남자의 모습이 매우 찬란한 빛속에 있는 것이 보였다. 놀란 아이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그 나무가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빛속에서 젊은이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다. 강한 빛속에서 나타 난 천사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숙이고 기도했다. 이를 보고 있던 아이들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천사가 하는 기도를 따라 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 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천사는 이렇게 3번 기도 한 후,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의 천사란다.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께서는 너희가 간청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시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다.

"은혜를 모르는 인류에게서 지극한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들의 죄를 보속하여 너희 하느님께 위로를 드려라."

성체와 성혈을 모시고 온 미카엘 대천사

루시아는 당시의 체험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초자연적인 힘이 어찌나 강렬 했던지,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존재를 의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 였습니다. 천사는 떠나갔지만 우리는 똑 같은 자세로 계속 같은 기도를 되풀이 하면서, 하느님의 현존하심 속에서 감히 말을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날의 일들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혹은 비밀로 하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그 날 있었던 일들을 비밀로 할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내적인 체험이라서 말로 전한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해에 어린이들은 두 번째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아이들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들아, 무엇을 하고 있니?"라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 보니 전에 보았던 평화의 천사가 있었다. 천사가 말했다. "아이들아, 기도, 기도를 많이 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느구나." 천사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보속하고 기도와 희생을 바치라고 했다. 미카엘 천사의 세 번째 방문 때에는 들고 있는 성작 위에는 성체가 떠 있었고, 그 성체에서 흐르는 핏방울이 성작 안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천사는 성작과 성체는 공중에 그대로 둔 채, 땅에 엎드려 같은 기도를 세 번 반복하였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 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워 갚기 위함이니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천사는 성작과 성체를 손에 들고 루시아에게는 성체를,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에게는 성작에 든 성혈을 영해 주면서 말하였다.

"은혜를 모르는 인류에게서 지극한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들의 죄를 보속하여



너희 하느님께 위로를 드려라."

천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하느님께 대한 기도를 3번 더 바친뒤 사라졌다. 루시아는 천사의 두 번 방문후, 영혼 내에서 관통하는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강하게 느꼈다고 하였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루시아에게 물어 보았다. "천사가 루시아에게 준 것은 성체였는데 나와 히야친타에게 준 것은 무엇이었지?" "그렇게 하는 것도 영성체야. 성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못보았니?" 히야친타가 대답했다. "나도 내 몸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 하지만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말하고 땅에 엎드려서 미카엘 대천사가 가르쳐 준 성삼위에게 바치는 기도를 계속했다.

3명의 파티마 목격증인들의 죽음

1941년에 루치아는 성모님은 1917년 6월 13일 두 번째 발현에서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의 이른 죽음을 예언하셨다.

파티마
성모 발현
100주년



성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 성녀

파티마 성모님 발현 목격증인 3명중에 프란치스코, 히야친타는 2017년 5월 13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으며, 2005년 선종한 루시아 수녀는 현재 시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림피아 마르토(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의 어머니)의 증언을 포함한 일부 이야기에 따르면, 성모님의 이 메시지는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 성모님 발현이 있던 2년 뒤 유럽 전역을 휩쓴 유행성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다. 히야친타와 프란치스코는 병실에 입원하면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자신들의 죽음을 예측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들였다고 한다. 1941년에 작성된 문서에 의하

면, 루시아는 성모님께 자신을 포함한 세 명의 발현 목격자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성모님은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는 곧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나 너는 좀 더 오래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알려지고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세상에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다. 루시아는 2005년 2월 13일, 향년 97살의 나이에 죽었다. 시성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1949년과 1951년에 무덤을 발굴했을 당시, 히야친타의 유해는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반면에, 프란치스코의 유해는 부패하여 있었다.

파티마의 태양의 기적

성모님 발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었던 20세기 최대의 파티마 성모님 발현과 기적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성모님께서 세 번째 발현인 1917년 7월 13일 세 어린이들에게 파티마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큰 기적을 약속하셨다. 10월에는 엄청난 기적이 발현 장소에서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포르투갈 전역에 퍼졌다. 수 만명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걸어서 코바다 이리아로 몰려 들었다. 성모님께서 약속하신 10월 13일을 하루 앞둔 12일은 엄청 난 폭풍우가 몰아쳤다. 세상 끝이 온 것 처럼 사방이 온통 진흙탕이 되어서 걷기도 힘들어진 길을 따라, 코바다 이리아로 가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 받고 육신의 병과 지치고 슬픈 마음을 고쳐 줄 기적을 기대하였다. 해가 뜰 무렵이 되자 길바닥은 밤새 몰아친 폭풍우 때문에 엉망 진창이고 날씨는 여전히 험악했다. 시커먼 구름들이 파티마를 뒤덮었다. 10시가 되자 구름에 완전히 덮힌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내렸다. 거센 비바람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비에 흠뻑 젖어 들고 뼈 속까지 파고 드는 추위에 아무도 불평하거나 돌아 가는 사람은 없었다. 성모님이 약속하신 발현 시간인 정오가 지나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조용하였다. 장대처럼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오



사람들은 자신들 삶의 자세를 바꾸고 지은 죄를 용서 받기를 기도해야 한다.



1917년 10월 13일 파티마 태양의 기적을 보고있는 사람들

후 1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루시아가 크게 소리쳤다. "저기! 히야친타. 무릎 꿇어! 부인에게서 오신다. 번쩍이는 빛을 봤어." 어린이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다. 성모님의 발현을 보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무아경의 표정이 나타났다. 루시아가 천상에서 온 부인에게 물었다. "저희에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기념하여 이곳에 성당을 짓기를 바란다. 그리고 매일 묵주기도를 하여라. 그러면 전쟁은 곧 끝나고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 오게 된다." 루시아가 성모님께 물었다. "부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 잠시 경건한 침묵이 흐른 후, 루시아가 성모님께 말씀드렸다. "사람들에게 많은 청을 받았습니까. 그 청들을 들어 주시겠어요?" 성모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그럴 수가 없단다. 사람들은 자신들 삶의 자세를 바꾸고 지은 죄를 용서 받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하느님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하느님을 괴롭혀 드렸기 때문이란다."

묵주기도의 모후께서는 서서히 동쪽으로 움직이셨다. 어린이들은 성모님이 손을 펴서 구름이 덮고 있는 하늘을 향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것이 신호라도 되는 듯이 비가 멈추고 하늘을 뒤덮고 있었던 두터운 구름들이 갑자기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태양이 묘한 은빛 원반처럼 회전을 하고 있었다. 루시아, 히야친타 프란치스코가 성모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로 향한 성모님의 손에서 태양 빛보다 강

한 광선들이 태양을 향해 서서히 뻗어 나갔다. 루시아가 소리쳤다. "태양을 보세요!" 7만 여명의 군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회전하며 돌고 있는 태양을 보았다. 회전하는 태양은 춤을 추듯 가장자리의 테는 엷은 색의 무수한 빛들을 발산했다. 태양은 마치 거대한 물레와도 같았다. 처음으로 갈라진 구름 사이로 태양이 나타났을 때, 그 움직임은 자체의 축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급회전하면서 2-3분 동안 여러 색깔의 빛을 발산했다. 잠시 후, 태양의 회전과 쏟아지는 빛이 멈추더니 이번엔 태양이 떨기 시작하면서 구름 속에서 떠다니기 시작했다. 태양은 다시 다채로운 색깔의 광채를 내뿜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돌았다. 잠시 후, 태양은 어지러운 정도의 회전과 다채로운 빛의 방사를 그치더니 다시 떨리면서 움직였다. 태양이 빠른 회전과 특이한 움직임으로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난 태양은 땅과 공포에 질린 군중들을 향하여 좌우와 상하로 흔들리면서 밑으로 내리 박히듯이 떨어지면서 내려왔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질린 채 바라보고 있었다. 태양은 땅에 가까워질 수록 더 거대해지고 더 뜨거워졌다. 모든 사람들은 마치 종말이 와서 지구와 태양이 이 불덩이에 의해 부서지거나 타버릴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수 많은 군중들이 진흙탕속에 무릎을 꿇고 공포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듯한 소리가 온 사방에서 들려왔다.

"오, 하느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구해주소서!"

"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소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던 태양이 갑자기 멈추고 평상 처럼 황금색의 빛의 태양으로 눈부시게 빛났다. 그날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왔다. 밤새 내린 장대비로 진흙탕속에서 있던 수 많은 사람들은 땅을 향해 떨어지는 태양을 보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다. 진흙 땅에 엎디어서 울부짖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다. 밤새 내린 비로 흠뻑 젖어 있던 자신들의 옷과 진흙탕이었던 땅과 주변의 모든 것이 모두 바짝

'예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구하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말라 있었다.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들,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 신문기자들은 모두 자기들이 본 기적의 증인들이 된 것이다. 태양의 기적은 수 만명의 사람들에게 미리 예정된 것이기에 다른 기적과는 다른 점이다. 워낙 규모가 큰 초자연적 현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각도의 논란도 많았다. 그럼에도 파티마에서 40km나 떨어진 다른 마을에서도 목격되었다는 것과 태양의 기적이 있었던 10분 동안에 밤새 내린 장대비로 젖었던 모든 물체가 강한 열기에 의해 모두 말라버렸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또 다른 신기한 일은 파티마와 인근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태양의 변화나 어떠한 이상 현상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천문학자들도 태양관측에서 다른 징후를 감지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질서를 뛰어 넘은 곳에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 주신 기적이기 때문이다.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

파티마의 두 번째 발현에서 성모님은 다음 달 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기를 약속한 후 로사리오 기도에 대해 언급하셨다. "로사리오 기도를 할 때는 매 단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길 바란다. '예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구하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루르드에서부터 오른팔에 로사리오를 들고 오셔서 벨라멧다와 함께 로사리오 기도를 하시던 성모님께서 파티마에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기도를 알려 주셨다. 이 기도문은 파티마의 발현이 공인된 이후 로사리오 기도에 정식으로 추가되었다.



세 번째 발현에서 목격자들은 놀랍고 두려운 장면을 보았으며 루시아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성모 마리아께서 손을 펴자 그곳으로부터 빛이 반사되어 지구 안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지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의 바다로 들어간 듯, 사람의 모습을 한 악마와 영혼들이, 그 불 속에 잠겨 있는 듯, 연기 구름과 함께 불꽃에서 나와 이리저리 흔들리며 불속에서 떠다니는 투명한 검정이나 청동색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절망의 부르짖음 속에서 커다란 불 속의 불티와 같이 무게도 평형감도 없이 이리저리 마구 떨어졌는데 우리에게 공포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악의에 찬 수많은 무서운 마귀들과 알 수 없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불속의 검뎅이처럼 속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첫번째 비밀

그들 곁에 성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미 성모님께서 이들은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라 알려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았고 루시아는 전했다. 3명의 어린이들은 성모님을 바라보며 도와 달라고 소리쳤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내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이 전해 지기를 바란다. 만약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며 평화가 올 것이고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느님께 죄짓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전쟁이 비오 11세 재임시에 일어날 것이다. 네가 알지 못

'결국은 나의 티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빛이 밤에 비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느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표시임을 알아라. 그분은 전쟁, 기근, 교황과 교회에 대한 박해 등으로 이 세상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나는 내 티없는 성심으로 러시아를 봉헌할 것과 첫 토요일에 배상의 영성체를 요청하러 다시 오겠다. 만약 나의 요구들을 지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들의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교회는 박해를 받고, 의인들은 순교를 당할 것이며, 교황은 많은 고통을 받고, 여러 민족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나의 티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교황은 러시아를 나에게 봉헌할 것이고, 그들은 회개하여 평화의 시기가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포르투갈은 신앙의 진리가 항상 보존될 것이다."



을 때 성모님께 받았던 메시지를 기억하였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주교에게 전하였다. 이날의 현상을 천문학자들이 오로라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느님께서 드러내신 표징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천문학자들이 조사를 한다면 이는 단순한 오로라가 아닐 것입니다. 설령 오로라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느님께서 죄를 많이 지은 나라를 벌하시겠다는 표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은 1922년에 선출된 비오 11세가 재임했던 마지막 해이며,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1938년에 발발했다. 이 전쟁으로 유럽에서만 600여만명의 유대인을 포함한 5000여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하였다. 또한 그리스도 정신과 정의를 위해 나치에 저항했던 가톨릭 사제인 막시밀리안

콜베, 야곱 갓 신부등과 같은 수많은 성직자들이 공산당 경찰들의 박해를 받고 순교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1945년 4월 30일에 노스트라다무스에 의해 적그리스도라고 지목되던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함으로써 끝났다. 아시아에서의 전쟁은 대동아 공영을 내세우며 해괴한 집단적 정신병을 앓아오던 일본의 히로히토가 연합군에 손을 들게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악마는 그 본거지를 서부 유럽에서 동부 유럽으로 옮겨 가고 있었다.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완료된 것은 파티마 발현이 완료된지 불과 몇 달 뒤였다. 하느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공산

두 번째 비밀

마지막 파티마의 발현 후 1년 뒤에 성모 마리아의 예언대로 1차 대전은 끝이 났다. 그리고 1938년 1월 26일자 뉴욕타임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제목으로 기사를 싣고 있었다. <오로라가 전 유럽을 놀라게 하다. 두려움에 사람들 피신, 화재 싣고 잇달아> 영국인들은 원저궁이 화염에 싸인 줄로 알았으며 알프스의 눈 덮인 산들이 밤에도 눈에 빛이 반사될 정도로 적색, 녹색, 자주색의 빛들이 밤하늘에 마치 탐조등이 진동하듯 하였다고 했다. 이 오로라 현상은 통상 북위 70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 보이는 것이지만 이날은 로마와 같은 남부 유럽에서도 보였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 흑점의 활동으로 이런 오로라가 생겼으며 그 자기력이 이례적으로 강하여 오랫동안 라디오의 단파 방송이 지장을 받을정도였다고 했다. 스페인의 한 수녀원에 있던 루시아 수녀는 창문을 통해 이 기괴한 현상을 보았고 21년 전 그녀가 9살이었



세계를 전쟁으로부터 구하고 무신론으로부터 구하는 길은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러시아를 회개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1984년 3월 25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 성전 앞에서
러시아를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주의 이념은 세계 곳곳에 그 악마의 씨를 뿌렸으며 여러 나라들이 소련에 흡수되어 지도상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다. 신앙을 갖고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1945년 한 해에만 추기경을 포함한 800이 넘는 사제들이 체포되었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다. 체포된 신부들은 구금되어 처형을 당하거나 독살되었다. 이후에도 사제들은 고해 성사를 보거나 종교적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발각되면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신앙의 동토시대가 시작되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파티마의 두 번째 비밀은 불행하게도 적중하고 말았다.

티 없으신 성모성심께의 봉헌

1984년 3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든 주교들에게 러시아 봉헌을 위해 교황도 합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냄으로써 파티마에서 "러시아를 티 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하라"는 성모님의 요청이 실현되었다. 그리고 1985년 3월 11일 미카일 고르바초프는 소비에트 연방의 서기장으로 선출되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펴 마침내 공산주의의 종말을 보게 된 것이다. 이후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고 많은 나라들이 빼앗겼던 그들의 영토와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결국은 나의 티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저격당하다.

1984년 교황의 러시아 봉헌을 촉구하는 서신이 있기까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파티마 발현 64주년인 1981년 5월 13일 베드로 광장에서는, 매주 진행되는 교황의 알현을 하기 위해 모여든 2만여 명의 군중 사이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지금은 방탄 유리가 있지만 당시에는 없었던-, 교황 전용차를 탄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나가고 있었다. 한쪽에 흰 브라우스를 입은 여인을 보고 있었다. 교황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본듯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숙인 순간 총탄이 교황의 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세 번째 총탄은 교황의 복부에 박혀 버리고 말았다. 현장에서 프란치스코회 수녀와 군중들에게 붙들린 범인은 터키 국적의 23세 되는 청년이었다. 다행히 교황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사건은 교황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비밀리에 임명되고 강제 수용소에서 몇 년간을 보낸 슬로바키아 Pavol Hnilica 주교의 말에 의하면 교황은 병원에서 회복되는 동안 파티마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Hnilica 주교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비밀리에 임명되어 모스크바에서 베이징까지의 공산국가들을 관할하는 교구를 맡고 있었다. 파티마 문서를 받은 교황은 매우 세밀하게 읽었다고 했다. 그리고 Wojtyla 추기경은 아직 미완성의 러시아 봉헌을 요청하는 폴란드 주교의 청원서를 바티칸에 전했다. Hnilica 주교가 전하기를 교황은 병원을 떠나면서 "세계를 전쟁으로부터 구하고 무신론으로부터 구하는 길은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러시아를 회개시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 1991년 5월 13일, 암살 기도 10주년에 바오로 2세는 파티마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파티마 성모님의 보호하심 덕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며 "영원한 어머니이시며 1981년 5월 13일 제 곁에 당신이 있으셔서 도와주신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제 3의 비밀

파티마 제 3의 비밀로 알려진 세 번째 비밀은 갈멜 수도원의 수녀가 된 루시아에 의해 1944년에 쓰여졌다. 이 편지



목격자인 루시아가 본 제 3의 비밀 환시

는 1957년 이래 교황청에 보관되어 오다가 2000년 5월 13일 파티마에서 두 명의 발현목격자인 히야친타와 프란치스코의 시복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세상에 공표되었다. 그리고 이어 2000년 6월 26일 오전 교황청 보도국이 "파티마의 메시지"를 발표함으로써 파티마 제 3의 비밀은 공식적인 문서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이 문서는 당시 신앙고리성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과 차관 마르치시오 베르또네 대주교의 서명을 받았다. 파티마의 제 삼 비밀로 불리우며 40쪽에 이르는 이 문서는 베르또네 대주교의 서문으로 시작한다. 1941년 8월 31일자로 된 루시아 수녀의 파티마 비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비밀 메시지의 원문의 사진 복사본과 번역문, 요한 바오로 2세가 루시아 수녀에게 보내는 2000년 4월 19일자의 서신, 2000년 4월 27일 포르투갈 갈멜 수도원에서 있었던 레이리아-파티마의 세라핌 데 수우사 페레이리아의 실바 주교, 베르또네 대주교 그리고 루시아수녀 사이에 있었던 대담의 요약으로서, 2000년 5월 13일의 히야친타와 프란치스코의 복자 시복 후의 국무원장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 담화와 라칭거 추기경의 신학적 주해로 구성되어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음은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의 코바다 이리아에서 세 어린이들에게 계시되었고, 1944년 1월 3일 루시아 수녀가 제출했던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의 르투갈어 원문의 완역이다.

"저는 저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님과 주교님을 통해 명하신 하느님께 순종하며 이 편지를 작성합니다. 제가 이미 설명하였던 두 가지 계시 후에 성모님의 왼쪽과 약간 위에서 우리는 한 천사가 불타는 칼을 그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번쩍이며 그것은 마치 세상에 불을 지르듯이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오른손으로부터 그를 향해 내보낸 광채에 맞자 불꽃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천사는 오른손으로 지구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신 거대한 빛 안에서 보았습니다. '거울 앞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것처럼' 한 주교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교황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른 주교들, 사제들, 남녀 성직자들이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나무껍질이 붙은 코르크 나무 같은 거칠게 다듬은 통나무로 된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다르기 전에 교황님은 반은 황폐해지고 반은 떨고 있는 큰 도시를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여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교황님은 가는 도중에 만났던 시신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 이르러 큰 십자가 밑에서 교황님은 그에게 총과 화살을 쏘는 병사들에 의해 무릎을 꿇은 채 죽으셨으며, 같은 방식으로 차례차례 주교들,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과 여러 계층의 평신도들이 죽었습니다. 십자가 양쪽엔 두 천사가 각각 그 손에 수정으로 된 성작을 들고 있었는데 두 천사는 거기에 순교자들의 피를 모았고 그것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파티마 성모 세 번째 비밀은 종말이 아니다.

1996년 11월 3일의 교계 신문의 리스본 발로 된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원문 번역본이 함께 실렸던 문서에서 라칭거 추기경은 파티마 제3 비밀을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세 번 거듭되는 천사의 커다란 외침, 곧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에 있다고 밝혔다. 시대의 징표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회개의 절박성을 받아 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응답이라는 것이다. 추기경은 제3의 비밀 두 번째 부분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환시에서 하얀 옷을 입은 주교, 곧 교황의 역할은 특별합니다. 교황이 거의 폐허가 된 도시에서 고통과 슬픔에 싸여 다른 주교들, 사제들, 수도자들 그리고 다른 여러 신분의 신자들 앞에 서서 시체들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은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으며 폭력과 파괴와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의 역사가 이 모습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루시아 수녀의 글에는 교황이 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해당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모님의 손'의 도움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 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불변의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신앙과 기도야말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며 기도는 총알보다 강하고 신앙은 군대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십자가의 두 팔 아래서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 하느님의 길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천사들의 모습은 피와 눈물을 통한 구원의 희망을 보여 줍니다. 이처럼 파티마 제3 비밀의 결론은 희망입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에게 징표가 되는 것은 고통받는 교회, 순교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겪는 고통에서 평화와 쇄신의 힘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라칭거 추기경은 파티마 제3 비밀에서 세상 종말에 관한 계시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파티마의 계시는 개별 사건에 관한 과거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비밀의 의미는 구원의 길인 기도를 권고하고 참회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며, 마리아의 순종(그대로 이루어지소서)으로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시고 역사가 바뀌었듯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파티마 제3의 비밀에 대한 교황

청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 제 3의 비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가 있다.

바로 '마리아 사제 운동'의 창시자 스테파노 곱비 신부인데 2000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탈리아 폴레바렌차에서 열린 "마리아 사제 운동 국제 피정" 중 강론을 통해 펼쳐졌다. 또한 2008년 옛 소련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한 회의가 열렸다.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은 벨로루시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민스크에 모여 루르드의 성모 발현 1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러시아를 위해 노력한 성모 마리아를 크게 존경하였다. 신심 깊은 신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러시아를 위해 파티마의 성모에게 바친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증표로 인식되고 있다.

"티없는 내 성심 안에서라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티없는 내성심이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이 될거다."
<1986년 6월 7일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성모님의 약속

- 파티마에서 첫번째 발현 67주년인 1984년 5월 13일, 봉헌 후 두달이 안되어 소련에서 북쪽 함대 지원을 위한 주요 군수품 저장 창고의 80%를 파괴시키는 한 폭발사건이 일어났다.
- 1984년 12월 13일,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폭발은 소련의 가장 큰 군수품 기지를 파괴시켰다.
- 소련의 국방장관인 마샬 유스티노프가 1984년 12월 19일 살해되었다. 3일 후 새 국방장관인 마샬 소도로프가 죽었다.
- 봉헌 후 1년 되던 해인 1985년 3월에 소련의 대통령 체빈코가 죽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글래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정책을 실시했으며 공산주의 붕괴를 가져오게 했다.

로사리오 기도를 바칠 때, 한 단을 끝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 1989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에 폴란드는 반공산주의가 이끄는 정부로 돌아섰다.

● 1989년 10월 7일, 거룩한 로사리오 성모님 기념일에 헝가리 공산당이 유럽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향하는 투표를 했다.

●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철의 장막이 무너진 것은 우리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다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 1989년 12월 1일, 고르바초프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만났고 종교의 자유를 약속했다. 교황은 이 만남을 "시대의 징표", 그리고 "약속의 풍부한 징표"이며 "하느님의 섭리"였다고 말했다.

● 1990년 5월에 파티마 레이리아의 아마랄 주교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상황을 통해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봉헌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 1990년 3월 15일, 교황청은 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 1990년 6월 13일, 헝가리의 파스카이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다.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일어난 사건들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믿음을 가진 정치인들은 이 변화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성모님의 약속이 실현되었고, 이 변화들은 성모님의 중개결과라는 것을 확신한다."

●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래로 1990년 10월 13일, 첫 번째 종교행사가 크레틀린 내의 성모승천 성당에서 개최되었다. 그 전에 이 성당은 무신론자들의 예술회관으로 사용되었다.



● 1990년 11월 11일, 폴란드가 공산주의에서 해방됨을 경축할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오, 내가 아니라 파티마에서 확인하신 대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업적입니다."

● 1991년 8월 19일, 공산주의자들은 고르바초프를 전복시키려 했다. 바로 며칠 후인 8월 22일, 여왕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에 붉은 공산주의는 패배했다.

● 몇 달이 지난 1991년 10월 13일, 첫 번째 러시아 순례객들이 파티마에 왔고 그날은 여섯 번의 파티마 성모발현이 있는지 74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 역사적 사건은 소련에서 150개의 TV 방송과 많은 라디오 방송으로 두 번이나 중개되었다.

● 1991년 성탄에 공산주의 깃발이 마지막으로 내려졌다. 12월 30일 바르샤바 조약이 끝나고 열다섯 공화국이 소련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마리아 106호에서>

파티마 구원경의 의미와 묵상

오, 나의 예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하늘 나라로 인도하십시오.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혼을 인도하십시오."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에 세 번째로 발현하신 성모님은 세 어린이들에게 구원경을 가르쳐 주시며 "로사리오 기도를 바칠 때, 한 단을 끝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말씀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요 세상을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이다"



하셨다. 파티마의 기쁜소식 전체를 매우 간단하게 요약해놓은 이 기도는 모든 인간과 세계 전체를 구원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초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염려는 파티마의 기쁜소식 전체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오, 나의 예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기도를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대한 기도가 되게 해준다. 목주 기도 전체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한마디로 목주기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이다. 마리아께서는 아드님을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다. 여기서는 성모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로서 또 예언자로서 말씀하고 계

시는데, 20세기에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시지 않았던가? 마리아는 "나는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 안에는 구원받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파티마 기도가 첫 번째로 부탁하고 있는 것은 보속이다. 이 보속은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나 거듭해서 내적인 회개를 필요로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동시에 이 첫 번째의 부탁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이 기도는 '죄의 기도'이기도 하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데 참여한다. 여기서 다시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요 세상을 화해시켜 주시는 분이이다"고 한 파티마의 기쁜소식의 핵심이 드러난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마리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의탁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마리아는 여기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로서, 예언자로서 또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함께 체험하셨고, 아니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마리아는 이러한 부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동참하라고 가르치신다.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하소서

마리아는 당신 아들의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자유의지로써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랑에 반대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신다. 하느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당신께로 오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강요된 사랑이란 없는 것이다. 마리아가 당신 아들이 계시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새롭게 일깨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일종의 위협하는 복음일까? 마리아는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는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고 하신 예수님의 말

"너를 창조하신 분이 너 없이는 너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씀도 해당된다. 파티마의 기쁜 소식이 위협하는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은 다음의 부탁에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모든 영혼들을 하늘 나라로 인도하소서

중요한 것은 기쁨과 신뢰와 희망의 복음이다. 마리아의 아들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복음서 전체와 마찬가지로 파티마의 메시지도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다" (1디모테오 2,4)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는 우리 인간들의 동참이 요청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것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너 없이는 너를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더 나아가 창조주는 우리들이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구원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로 도움을 주고 동참한 마리아는 파티마의 기도를 바치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끌어 들이신다. 이것은 마지막 부탁에서 강하게 나타나있다.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혼을 인도하소서

여기서 마리아는 "우리가 창조된 목표, 즉 하느님과 영원한 삶에 대해 아직도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 미사경문에는 "당신으로부터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이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다. 현실주의가 널리 퍼져있는 현 시대에, 무신론의 시기에, 자율적인 인간이 스스로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시기에, 이런 영혼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부탁에서 오랫동안 기대된 하느님의 자비로 우심에 맡겨진다. 그러나 이런 것은 '먼 데 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비밀에 속한다. 이것을 교황 비오 12세는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교회에 관한 회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기도와 자발적인 참회의 고행(苦行)과 신자들의

동참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진정 소름끼치는 비밀의 한 가지다. 이렇게 파티마의 기쁜 소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 누구도 지나쳐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의 공동체와 희생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

구 소련의 레닌그라드 출신으로 교회를 떠난 타치아나 고리체바가 파티마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회원들이 러시아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도록 러시아를 대신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회개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군요"라고 놀라와했다. 오늘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다." "결국 나의 티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고 한 마리아의 약속은 이미 이뤄졌는가? 러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디이틸트 트레페르드 여사는 이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나는 감히 그 약속이 이미 이뤄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파티마의 약속은 실현되기 시작했다."

목주의 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께서 매단마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기도가 있다. 그것을 포르투갈 언어로 옮겨본다.

O meu Jesus! perdonai-nos, livraido fogo dainferno e levai as alminbas to das para o ceu, e socorrei principalmente as que mais precisaren.

(오, 나의 예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하소서.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고, 제일 버림받은 영혼을 이끄소서.)

alminbas(영혼들)란 표현은 "연옥의 영혼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가톨릭 기도서에는 연옥 영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루시아는 여기에 대해 계속적 질문을 받자, 성모님이 말씀하실 때 연옥 영혼이라기보다 회개와 영원한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죄인의 영혼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쉐프 슈크) **M**

(마리아지 1993년, 62호에서)

성모님께서서는 왜 파티마에서 갈색 스카폴라를 들고 오셨을까?



성모님께서서 발현하신 이후, 7만명 가량의 증인들인 많은 군중과 온전히 봉헌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인간에게 보낸 현실적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미약하다. 관상 가르멜 수녀회 수녀인 루시아에게 성모님께서서 성의를 손에 들고 가르멜산의 성모로서 발현했던 사실을 많은 저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 했다.

루시아의 확신

"당신은 성모님께서서 가르멜산의 성모로서 파티마에 발현하신 것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루시아 수녀는 "예, 확신합니다. 진정 성모님께서서는 신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현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가르멜산의 성모님께서서는 이 광경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내 생각으로서는 성모님께서서 마지막으로 발현하신 것은 가르멜산의 성모로서 파티마에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집약하신 것 같다. 성모님께서서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느님께 많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와 희생을 봉헌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평화의 천사를 보내셨다.

성모님께서서는 여섯 번이나 발현하시는 동안 당신의 손에 묵주라는 위력있는 무기를 들고 계셨다. 성모님께서서는 재차 기도하는 이들에게 매일 묵주기도를 드릴 것과, 매일 희생을 바칠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는 일상 생활에서의 작은 희생을 말한다. 성모님께서서는 마지막으로 발현하셨을 때 당신이 하신 모든 것을 정리하셨으며 가르멜산의 성모로서 마지막 모습안에 모든 말씀이 요약되게 하셨다.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도 성모님의 생명을 통해 다시금 태어나게 된다. "성모님께서서는 루시아에게 갈색 성의와 토요 특전을 주시면

서 모성애를 보이셨다.

이러한 것은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을 주는 큰 의미를 지녔다고 여겨진다. 내가 루시아 수녀와 만나 이야기할 때 "가르멜산의 성모로서 발현하셨을 때 성모님은 무엇을 원하셨는가?"하고 묻자, 루시아는 "성모님께서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파티마 메시지의 한 부분으로서 갈색 스카폴라를 착용해야 하고 신자들이 이 갈색 스카폴라를 착용치 않으면 파티마 메시지를 따를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당신은 성모님께서서 갈색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것을 매일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것 보다 더 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갈색 스카폴라와 묵주기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갈색 스카폴라와

묵주기도는 분리될 수 없다

성모님께서서 갈색 스카폴라를 제시하신 700주년 기념식에 루시아는 교황님께서 성 시몬 스톱에게 보내신 서신의 일부분을 상기시켰다. "스카폴라는 오늘 이 세상에서 원죄없이 잉태되신 가장 거룩한 성심의 축성된 표지이다." 길고도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서 갈색 스카폴라를 통한 성모님의 영혼 구원 사업에 대해 교황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갈색 스카폴라는 원죄없이 거룩한 성심께 그들을 봉헌한 표지가 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드리는 봉헌의 표지로 주신 갈색 스카폴라를 취하십시오. 나아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평화를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복되신 어머니께 봉헌되어야 함을 알리십시오. 갈색 스카폴라를 통하여 특별히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께 가정을 다시 봉헌하십시오. 성모님께서서는 갈색 스카폴라를 통하여 이렇듯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사리오와 스카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리아께서 뺀치신 두 손이다."

우리의 결단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손에, 또 세계 곳곳의 신자들의 손에, 이 죄스러운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의 도구로서 묵주와 갈색 스카폴라를 주셨다. 이 캄캄한 세상의 밤을 밝힐 전등의 스위치가 우리의 손 안에 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1987년 마리아지 26호에서>

갈색 스카폴라의 유래와 신심

스카폴라 신심은 1251년 7월 16일 당시 기도 중이던 갈멜수도원장인 성 시몬 스톡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모님께서 스카폴라를 손에 쥐고 나타나시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스카폴라를 몸에 착용하여라. 누구든지 이 스카폴라를 착용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영원한 불의 고통을 면하게 될 것이다. 스카폴라는 구원의 표시이며,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막이 될 뿐만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성모님의 이같은 큰 약속은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 더욱 발전되었다. 성모님께서서는 잔 드레즈(후에 교황 요한 21세가 되심)에게 천상의 모후로서 나타나시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스카폴라를 경건한 마음으로 착용했던 영혼들은 죽은 뒤 첫 토요일이 되는 날 연옥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다."

이와 같은 스카폴라에 대한 성모님의 두 번째 약속은 토요 특전으로 불리우며, 1322년 교황 요한 22세에 의해 교령으로 선포되었다. 중요한 것은, 갈색 스카폴라가 성모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그리스도의 성심으로 가까이 이끄시는 기도라는 것이다. 지난 7백년간에 걸쳐 스카폴라에 대한 약속은 신학적으로도 오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콜롬비아의 성인 클라우디오의 말대로 어떤 준성사보다도 "훨씬 많고 진실"한 기적들에 의해서 확인되어 왔다.

(토요특전: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토요특전의 은사를 얻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1) 갈색 스카폴라를 착용한다. 2) 각자의 상황에 맞는 순결한 생활을 한다. 3) 로사리오 기도를 바친다.)

1940년대 말, 세 명의 갈멜수도회 소속 신부들인 도널드 오칼람, 알버트 워드, 그리고 올리베라의 루이스 곤자가 신부와 나눈 대화에서 티 없는 성심의 마리아 루시아 수녀는 성모마리아께서 스카폴라 신심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다고 회상했다. 성모님께서 군중들 앞에 마지막으로 발현하셨을 당시 앞서 발현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스카폴라를 손에 들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스카폴라를 착용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이며, 다른 한 손에 들고 계셨던 묵주 역시 묵주기도에 대한 성모 성심의 바램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것이다.

<루시아 수녀와 갈색 스카폴라>

주님의 심부름꾼이었던 루시아 수녀는 1950년 10월 15일 갈멜수도회 원장이었던 하워드 래퍼티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스카폴라를 착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손에 들고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 파티마 발현 -

성모님 :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구원 받을 것이다. 갈색 스카폴라는 나의 보호의 표시이다. 항상 그것을 지니고 있어라.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것은 나의 사랑의 표시이며, 너희로 하여금 나를 자주 기억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준성사의 목적이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러한 성사들의 배후에 계신 분을 기억케 하며 또한 너희로 하여금 성사들의 덕을 본받도록 도와줄 것이다. 스카폴라와 묵주는 준성사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것들이고 너희에게 최대한의 보호를 받게 해줄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이 그것을 착용하고 다니기를 바란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하나의 간편한 방법이다. 그것을 항상 지니고 있어라. 지금은 이게 전부다. 너의 묵주기도를 끝마쳐라." **M**

<예수 마리아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에게' 중에서>

<<http://m.blog.naver.com>에서 >

성모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내적, 외적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자주 "사랑하는 어머니,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다. 또한 세상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는 "성모 마리아님, 우리의 어머니, 우리를 도와소서!" 라고 성모님을 부른다. 그에 대해 성모님께서 무어라고 응답하셨던가? 급진적인 이교도 군사들에 대항하던 당시에 도미니코 성인 (13세기 초)에게, 유명한 모슬렘과의 전쟁, 레판토 전쟁에서 교황 성 비오 5세를 통해, 루르드의 성녀 베나벳트(1858)에게, 그리고 파티마의 어린아이들 (1917), 일본 아키타의 사사가와 수녀 (1973), 그리고 최근 인준된 아르젠티나의 성 니콜라스 (1983-1990)에서 - 각기 특별한 사건 안에서 성모님의 응답은 "묵주기도를 하여라" 고 말씀하셨다.

세대의 심각성이 심화될 때 마다,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께서는 더욱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며 매일 묵주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셨다. 나는 묵주기도의 힘이 사탄의 외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피트렐시나의 비오 성인이 "무기"라고 말씀하심) 예수회 소속의 여덟 명의 사제가 히로시마에서 살아남은 것과 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단임에 전했다. 성모님께

서는 각 시대마다 불가능을 가능케하는 묵주기도의 힘을 보여주셨다. 지금 우리는 온 세상이 하느님을 거부하는 교만과 "우리도 하느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루시퍼의 자만심으로 인해 두려운 절망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으며, 한시라도 빨리 묵주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도록 묵주기도에로 되돌아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아니라 교황 비오 9세 이후 모든 교황들에 의해 확인된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뜻이다. 교회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내적으로는 우리들의 가정이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복음화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영적공격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를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싸우고 있을 때 가장 큰 영적 공격 아래 있게 된다. 사탄은 성모님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가장 빠르면서도 완벽하고 힘 있는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묵주기도의 내적인 힘

그러므로 가정을 위하여 성모님의 기도로서 묵주기도를 선택하였을 때, 내적인 힘을 주는 묵주기도에 대해 간략하게

묵주기도를 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성모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이다.

묵상해 보고자 한다. 많은 열심한 신자조차도 이 기도가 개인 기도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피앓으로 시작된 육화의 신비, 나자렛으로 되돌아 가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포한 말씀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하느님 사업의 한 장이었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아담, 새로운 창조의 주인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낙원의 문을 다시 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대천사에 의해 선포되었던 그 하느님의 말씀의 힘은 우리가 성모송의 첫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되풀이 된다. 자격이 없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가족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무한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면서 그 드라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으므로 항상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 우리 또한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써 그 신비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 오지는 않는다." (이사야서 55:11)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할 때 그 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그 순간에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핵심이다. 기도는 움직이지 않는 단순한 역사의 기억이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역동적이며 역사를 통해 드러내어진 삼위일체 신비의



살아있는 드라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 끊임없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드라마이며 (그리이스 묵시에서 발췌) - 이는 세상 끝까지 계속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전례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묵시록의 성 요한이 천국으로 들어 올려져서 위대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안에서 받았던, 인류역사를 모두 바꾸어 놓은 희생제사다.

각 신비는 현존이 된다.

이러한 현존을 묵주기도의 신비에 대한 묵상에 적용하면서, 단지 예수님과 성모님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정한 상황과 내면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세례자 요한을 성화시켰던 신비를 기억하고 바로 지금, 현재의 자신의 마음, 자신의 본당, 나라, 교회 전체에 대한 실제상황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성모님께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성모님이 방문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성모님께서 여러 장소에서 발현하실 때마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빠른 시간내에 회개하였다.

복되신 우리 어머니의 은총

묵주기도를 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성모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므로 그분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자주 그것을 잊어버린다.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를 배웠다. 예수님은 유대인 관습에 따라 기도하셨고 그것을 성모님으로부터 배웠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다는 것은 아름답고도 심오한 신비이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당신의 신적인 아들의 관계를 계속하고 계시며, 십자가 위에서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내어 주셨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을 양육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양육하시며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성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묵주기도이다.



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 않는가!

그러면, 성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묵주기도이다. 장미 화관이란 의미의 이 아름다운 기도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현실화된다. 이 기도는 우리의 육체와 (손가락으로 묵주를 돌림), 정신 (구원의 핵심인 신비를 묵상함), 그리고 영 (성모님, 예수님 안에서 쉬면서 성령께 우리의 내적 삶을 비추어 주시고 힘을 주시도록 청함)으로 드리는 기도이다. 각 신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여 열 번의 성모송으로 옮겨진다. 성서의 말씀을 반복하며 각 신비를 묵상함으로써 하느님의 가장 큰 사업을 불러오고 우리의 거룩한 어머니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구원의 은총을 전구해 주시도록 청한다. 각 신비는 삼위일체의 영광을 부르며 끝을 맺는다. 그것이 성모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우리의 주님께서 삼십년동안 성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처럼 우리도 성모님으로부터 배워야한다. 그것이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에 대해 이야기 하며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성모님의 학교" 에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 그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의 학교로부터 묵주기도를 배운 것이다. 그러므로 커다란 시련의 때에 교회를 구하기 위해 왜 묵주기도가 효과가 있었으며, 왜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중대한 위기의 때에 해결책인지를 알것이다. 묵주기도가 세상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은 성모님께서 참된

신심을 가지고 묵주기도를 하는 가정과 영혼 안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과, 성모님께서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파티마를 통해 모든 가정 안에서 매일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이유를 엿보게 한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지금이 바로 마음을 다해 성모님의 부름에 응답하라는 말씀을 듣고 묵주기도를 하여야 할 그 때이다. 세상의 운명은 기도에 달려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인준된 아르헨티나 티콜라스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말씀이다.

"나는 묵주기도의 하얀 화관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 성모님을 보았는데 말씀하셨다.

'이 화관을 보아라. 이것이 네가 하길 바라는 참된 묵주기도의 화관이다. 기도하여라. 내 딸아, 기도하여라. 얼마나 많은 이들의 입이 여전히 침묵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짧은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지 모른다. 거룩한 묵주기도는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다. 또한 그것은 슬픔 안에서 빛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안식처이며 나의 성심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1986년 10월 4일)

내 딸아, 지금은 기도가 몹시 필요한 때이다. 이 때에 드리는 거룩한 묵주기도는 주님께서 내 목소리인 것 처럼 들으실 것이다. (1987년 6월 6일- 이날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TV에서 묵주기도하는 것을 방영한 날이다.)" 내가 너희에게 청하는 것은 기도이며 그것이 모든 인류를 인도할 것이다. 기도는 기꺼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며 사랑으로 자주 드려야 한다. 이 엄마는 자녀들이 하느님께 도달하게 되어 적이 패하기를 원하며 기도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1987년 6월 6일)

마지막으로 묵주기도는 가정에 대한 성모님의 살아있는 부르심에 곧 일치되어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에 봉헌하는 기도이다. **M**

by Peter Howard (Catholic Exchange/역: wisdom)



수요일 금요일 메주고리에 단식날의 묵주기도문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어린 자녀들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피곤하고 병들었을 때,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묵주를 들고 기도하여라.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구세주를 만나는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위해 전구하며 기도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1년 4월 25일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

환희의 신비 시작 기도

천상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세상의 창조주시여, 저를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당신과 친교를 할 수 있도록 부르셨음에 감사드리나이다.

단식의 날인 오늘, 당신 아드님과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기로 결심하며 오늘을 기쁘게 살고자 하나이다. 당신은 평화와 기쁨의 하느님, 자유와 사랑의 하느님이시나이다. 제 마음을 봉헌하오니 당신의 힘과 빛을 주시어, 제가 단식하는 오늘 하루를 당신 아들 예수님과 동정녀 마리아처럼 기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3, 영광송, 구원송)

환희의 신비 1단

오 아버지, 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어머니 마리아께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 어머니 마리아여, 당신의 마음은 성부의 뜻에 순명하고 하느님을 당신 삶의 첫 자리에 모시기 위해 자유로웠기에 이렇게 대답하셨나이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단식하는 오늘, 어머니 당신과 함께 기도하오니 세상의 모든 짐착으로부터 짓눌려 있는 제 마음을 정화시키고 제 눈을 멀게 하고 제 귀를 막아버린 모든 것들로부터 제 눈과 귀를 깨끗이 하시어 성부의 뜻을 알아듣게 하소서.

오 주님, 단식하는 오늘 완전한 내적 자유의 은총을 허락하시어 제가 당신의 뜻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아버지, 제 안에 당신께서 충만하시어 당신 뜻대로 하소서!" 라고 말씀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여, 당신의 삶 속에 하느님께서 완전히 들어가셨을 때, 다른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엘리사벳을 도와주기 위해 방문하시어 그녀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엘리사벳을 만난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웠기에 엘리사벳은 당신의 삶 안에 들어오신 하느님을 알아보고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였나이다.

단식하는 날인 오늘, 사랑을 통해 이웃을 만나는데 방해

기도와 단식을 통해 주님을 고대하고 그분이 오시는 날 환영 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다른 이들의 마음도 자유롭게 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제 안에서 당신의 현존을 알아보게 하소서.

이 기도와 단식을 통해 오늘 제 존재가 완전히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향해 열려있게 하시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행복한 친교를 이루게 하소서. 오 주님, 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단식의 날인 오늘을 당신께 봉헌함으로써 부모들과 자녀들이 충만한 내적 자유로움 속에서, 가족 안에서의 기쁜 친교를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환희의 신비 3단

오 어머니 마리아여, 가난 속에서 예수님, 평화의 임금을 출산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신과 요셉을 그 날 밤에 묶어가도록 손님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으셨나이다. 만삭의 몸을 보았음에도 당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들이었나이다. 당신의 마음은 주님께 봉헌되어 있었고 자유로우셨기에 야속함을 이길 수 있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행복에 차 있었고 천사들은 기쁨으로 노래했나이다.

단식하는 오늘, 당신과 함께 주님께 청하오니, 저를 모든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해방하시어 자유와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제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오는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평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어머니, 당신과 함께 당신처럼 평화의 임금님께 저를 봉헌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책임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와 단식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온전히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환희의 신비 4단

요셉과 함께 자유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기도하고 단식했던 늙은 시메온과 안나는 당신의 아드님이시며 그들의 구원자이며 모든 민족을 비추게 될 빛이신 그분을 알아 본 순간 행복했나이다.

단식하는 오늘, 저는 모든 신자들이 기도와 단식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열려있게 하시며, 말씀과 성체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알아보고, 모든 성사들 속에서 자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지상의 물질에 묶이고 세상과 인간적인 약속에 마음을 빼앗겨 시메온처럼 주님을 품안에 받아 드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단식하나이다.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어 시메온과 안나와 함께 자유롭게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오심을 경배하게 하소서. 기도와 단식을 통해 주님을 고대하고 그분이 오시는 날 환영 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환희의 신비 5단

오 어머니, 당신께서 성 요셉과 함께 당신 아드님을 성전에서 찾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삼일 동안이나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몰라 걱정하고 슬픔에 잠겨 계셨나이다. 성전에서 당신은 아버지 집에 남아있어야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찾으셨을 때, 당신의 마음은 당신 아드님을 찾은 기쁨에 활짝 개었나이다.

단식하는 오늘, 좋지 않은 가정 교육과 집착, 잘못된 길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로 들어서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적 자유를 잃은 이들을 위해 제 기도와 단식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봉헌하나이다.

오 어머니 마리아여, 나자렛의 예수 당신 아드님처럼 사랑과 지혜 속에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마침 기도

천상 아버지, 오늘 제가 기도하고 단식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음에 성령과 함께 계시는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을 경배하고 찬송하나이다. 기도와 단식을 통해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제 마음과 기도하고 단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머무르게 하소서. 저희들이 기쁜 날이나 우울한 날에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고통의 신비 시작 기도

예수님, 세상에 오시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까지도 부동켜 안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고통과 사랑,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저희들을 위해 고통 당하는 이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 하소서.

단식하는 오늘, 세상의 구원을 위해 제 기도를 당신께 봉헌하고자 하오며 특별히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사랑의 신비에 들어가고자 하나이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당신께서 단식하시고 수난과 고통을 당하셨듯이 저 또한 기도와 단식을 하고자 하나이다. 오늘 제가 느끼게 되는 배고픔을 당신께 봉헌함으로써 제 안에서 최고 좋은 것인 아버지의 원의와 당신의 말씀, 사랑과 평화에 대한 굶주림에 눈뜨게 하소서.

어머니 마리아여, 당신이 하셨듯이 기도하고 단식하도록



도우시고 가르치시어 당신 아드님의 고통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3, 영광송, 구원송)

고통의 신비 1단

주님, 겹세마니 동산에 가셔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고통의 잔을 감수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드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자유로운 덕분에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나이다. 당신은 사랑하셨기에 고통을 당하셨나이다.

단식하는 오늘, 예수님께 고통과 아픔을 유발시키는 저의 모든 나쁜 습관들과의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 하소서.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과 세상의 그 외 다른 악에 중독되어 있어 자기 자신과 가족, 부부, 자녀들에게 아주 어려운 겹세마니를 재현시키는 모든 중독자들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집착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 수감중인 이들,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 모두를 봉헌하나이다. 집착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을 해친 사람들도 봉헌하나이다. 이런 모든 이들을 위해 제 기도와 단식을 봉헌하오며 이런 모든 이들에게 내적 자유와 평화, 영육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주실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소서.

고통의 신비 2단

빌라도의 관저에 있는 기둥에 당신을 묶어 두고 인정사정없이 당신에게 매질을 가했나이다. 매질을 당해 생겨난 상처들과 붉은 피, 당신은 힘을 잃으셨고 고통을 경험했나이다. 이런 모든 것을 저희를 위해 바치신 당신, 악과 죄로부터 저희를 해방하시기 위함이었나이다.

단식하는 오늘, 제 마음이 당신의 고통을 향해 한 없는 감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사랑을 드러내소서.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악과 집착에 빠져버려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매질을 가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 기도와 단식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마음 안에 평화와 사랑, 용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악과 죄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불신과 마약, 술 등에 빠져있어 노름과 다툼, 이혼 등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매질을 가하는 모든 부모들을 위해 저의 기도와 단식을 봉헌하나이다. 저희들의 가정을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이런 매질들이 끝나게 하시고 기도와 단식을 통해 기쁨과 평화, 영육의 건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 임금으로 조롱하고 더욱 큰 고통을 주기 위해 그들은 당신 머리 위에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그 가시들이 당신의 이마를 찔렀나이다. 뿐만 아니라 붉은 색이 도는 망토를 당신께 입혀놓고 팔 사이에 왕의 지팡이를 찔러 놓고

절을 하고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모욕했나이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악과 악함으로부터 저희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참아내셨나이다. 당신께서는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악령들을 쫓아 낼 수 있다고 하셨나이다. 그럼으로써는 기도와 단식하는 날인 오늘, 모든 악령의 영향으로부터 일어나는 검은 미사와 접신을 하는 행위 등 사탄의 추종자들이 되어 악마를 찬양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잡신을 부르는 사람들과 점괘나 굿을 하는 사람들, 이런식으로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모욕하며 상처 입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기도와 단식을 보속으로 봉헌하나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와 단식하는 오늘을 봉헌하오니 주님이신 당신께서 그들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자유롭게 하소서. 당신의 한 말씀으로 그들은 사탄의 힘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당신께서 선사하시는 평화를 누리게 해주소서. 해방을 주고 사탄을 물리치는 말씀을 선포하시어 더 이상 평화가 파괴되거나 절망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소서. 구마를 위해 애쓰는 모든 사제들을 위해 제 기도와 단식을 봉헌하오니 그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권능을 악령들 위에 떨치시어 당신의 거룩한 피로 구원된 사제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 인내롭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 아래 넘어지셨지만 다시 일어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 걸으셨나이다. 십자가의 길에서 걸어가신 모든 발걸음과 매 번



예수님, 당신의 고통과 십자가, 수난과 죽음에 감사드립니다.

넘어지실 때마다 일어나시고 십자가의 길에서 사람들과 만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당신께 찬미와 흠송을 드리나이다.

기도와 단식의 날인 오늘, 모든 환자들과 병약한 사람들, 중병에 걸린 이들, 희망을 잃은 이들과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하루를 봉헌하나이다. 평생 십자가로 지고 가야할 투병 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소서. 특별히 무절제하게 먹고 마심으로 영육의 건강을 해친 이들과 음식과의 잘못된 관계로 기피현상을 보이거나 무절제하게 음식을 먹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토해버리는 거식증과 다식증에 빠져있는 이들도 봉헌하나이다.

기도와 단식의 날인 오늘,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오늘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단식을 통해 그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게 하소서. 또한 무절제한 성생활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 동성연애자들과 레즈비언들, 유년시절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오늘의 기도와 단식을 봉헌하오니, 당신께서 인공적이고 무절제한 삶으로부터 그들을 치유하시고 해방시키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 저희를 위해 십자가형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 드리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셨으며, 아버지 손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신 순간이 거룩하시나이다. 저와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평화로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기도와 단식을 봉헌하나이다. 기도와 단식으로 제 안에 있는 악과 죄가 죽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죄와의 관계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자살하는 모든 사람들과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며 술로 인해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등을 위해 저의 오늘의 기도와 단식을 봉헌하오니, 당신의 자비가 그들에게 영원한 삶의

문을 열게 하소서. 기도와 단식의 힘을 통해 저희들 안에서 죽음과 죄가 소멸되게 하시어 당신의 영원한 평화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마침 기도

예수님, 당신의 고통과 십자가, 수난과 죽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단식으로 제 삶 속에 있는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고 가게 하시고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기도와 단식을 하는 날인 오늘, 마음으로 당신의 고통에 당신과 함께 제가 일치하게 하시고 자유로운 영혼을 허락하시어 제 안과 밖에 있는 악과 대항해 싸워야 하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드리게 하소서.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 하늘나라의 잔치상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가치가 있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나는, 너희의 하루를 짧고 열렬한 기도로 가득 채우라고 너희를 부른다. 기도할 때, 너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시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이 은총의 시기를 잘 지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이 시기를 하느님께 봉헌하여라. 단식하고 극기하면서 9일 기도를 바쳐라. 그리하여 사탄을 멀리 하고, 은총이 너희 주위에 머무르게 하여라. 나는 너희 가까이 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느님께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5년 7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영광의 신비 시작 기도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당신께 깊이 무릎 꿇어 경배 드리나이다. 알렐루야!

기도와 단식의 날인 오늘, 죄와 악, 죽음을 이긴 영광스러운 당신의 승리 속으로 모든 마음과 영혼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어머니 마리아여, 하늘에 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발현을 통해 저희들 가까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승리의 위대함 속으로 들어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
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어머니 마리아여, 부활 날
아침 일찍 당신의 마음이 부활의 기쁨으로부터 빛났던 것 처
럼 제 마음도 그렇게 해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3, 영광송, 구원송)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 영광스럽게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셨나이다. 수난
과 십자가, 죽음과 영원한 무덤과 죽음의 어둠으로부터 새로
운 승리자가 되셨나이다. 기도와 단식하는 오늘, 제 자신과
죄의 무덤 속에 널브러져 있는 이들, 나쁜 습관과 증오와 집
착, 시기과 이기심, 교만과 무신론, 폭력, 다른 사람들의 죄
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 무덤의 어둠으로 떨어지는 이들 등
을 위해 봉헌하나이다. 모든 마음들이 영광스런 승리를 경험
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
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영광의 신비 2단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의 신앙을 새
롭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승
천하시기 전,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기도하며 기다리라

고 하셨나이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나이다.
기도와 단식하는 날인 오늘, 권력에 무릎을 꿇어 마음 안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지상 것에 눈을 두고 있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나 물
질에 묶인 이들을 위해 봉헌하나이다. 기도와 단식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천상의 것을 추구하며 마음과 영혼이 자유롭
게 되어 사랑하고 용서하며 자비롭고, 자선이 풍부한 올바른
이들이 되도록 하소서.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
이 자신 마음의 자유에 시선을 맞추도록 하시어 가난한 이들
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그 형제들을 돕게 하소서. 기도와 단
식을 통해 그들의 마음 안에 당신을 위한 첫 자리를 마련하
게 하시고 항상 당신에게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영광의 신비 3단

당신은 약속대로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
던 중에 성령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즉시 성
령을 받아드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을 위한 증거자들이
되었나이다. 기도와 단식하는 오늘, 평화의 성령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채우시고 불신하는 이들에게 신뢰의 영
을, 무신론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약한 이들에게 강한 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내려주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의 영을, 죄악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내적 자유의 영을, 증오하는 이들에게는 사랑의
영을, 좌절한 이들에게는 희망의 영을, 폭력을 구사하는 이
들에게는 온유의 영을, 옳지 못한 이들에게는 바른 영을, 자
비가 결여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자비의 영을 내려주소서. 슬
과 마약에 노예가 된 이들에게는 건전한 영을, 게으른 이들
에게는 부지런함의 영을, 당신의 뜻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순명의 영을, 인색한 이들에게는 자선의 영을, 교만한 이들
에게는 겸손의 영을, 교회와 세상에서 힘을 행사하는 이들에
게는 봉사영의 영을, 낙태를 일삼는 이들에게는 삶을 사랑하는
영을 내려주소서. 속임수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에게는 진
리의 영을 주시어 기도와 단식을 통해 모든 전쟁과 투쟁으로
부터 빠져 나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평화와 진리가

그들의 여정이 당신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게 하소서.

모든 이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이르러 당신 나라를 이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영광의 신비 4단

마리아를 영혼과 육신 그대로 하늘에 불러 올리심에 아버지,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천상 최고의 영광으로 당신 아드님께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신앙에 보답하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단식, 그분의 신앙과 사랑을 공경하나이다. 어머니 마리아여, 하늘에 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발현을 통해 저희들 가까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단식의 날인 오늘, 어머니, 당신의 메시지에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 봉헌하나이다.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삶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신앙에 굳건하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 천상 영광에 들 때까지 남아있게 하소서. 특별히 제 기도와 단식을 젊은이들을 위해 봉헌하오니 젊은이들로 하여금 당신 안에서 모든 삶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스승이며 어머니를 발견하게 하소서. 기도와 단식을 통해 악과 악의 속임수를 알아보게 하시고 세상이 고대하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당신 안에서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이 희망과 구원의 별을 보고 그들의 여정이 당신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게 하소서. 그럼으로써 길이요, 진리이시며 빛으로 예수님을 받아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영광의 신비 5단

동정 마리아를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 올려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화의 여왕으로 보내주심에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동정 마리아여, 저희들에게 지지치 않으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탄원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기도와 단식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지향을 위해 봉헌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 교회와 세상에 평화가 도달하게 하시어 모든 무질서가 제 자리를 잡게 하소서. 모든 믿지 않는 이들이 성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가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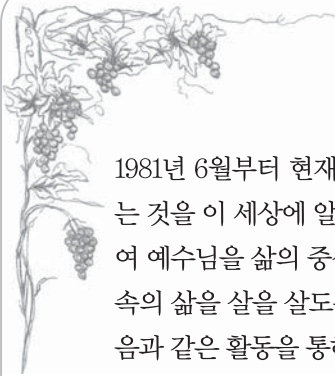
악과 모든 죄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기도와 단식의 날인 오늘을 기도와 단식으로 당신께 협력해 달라는 지향에 맞게 봉헌하나이다. 항상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10, 영광송, 구원송)

마침 기도

천상 아버지,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감사드리나이다. 당신께서는 제 영혼과 육신, 정신을 통해 온전히 당신 아들 예수님의 삶과 동정녀 마리아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단식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나이다.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나이다. 기도와 단식의 영으로 당신의 자녀를 가득 채우시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보게 하시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저희를 사랑하는 당신처럼 저희들도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평화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도록 어머니 마리아의 지향과 평화의 임금님이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M**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메주고리에에 발현하고 계시는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수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 기도, 회개, 믿음, 보속의 삶을 살을 살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2000년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설립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성모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
- 2. 신앙 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안내
- 3.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4.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을 위한 활동
- 5. 메주고리에 및 성모신심 관련 서적 출판
- 6. 메주고리에와 성모 신심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발행과 무료 보급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는 가톨릭 비영리단체인 선교회의 사명에 동참해주시는 회원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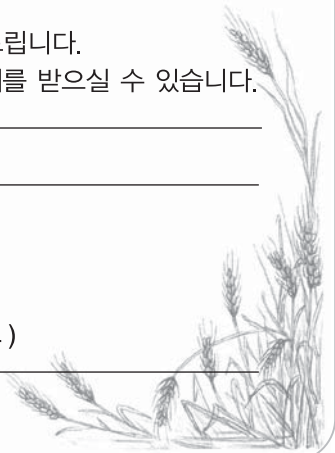
- 1.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 2. 메주고리에 순례때 회원들과 가정을 위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 3. 회원들을 위하여 매주 및 매월 첫 토요일 미사와 성모송 천 번 기도봉헌과 미사를 해드립니다.
- 4.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미사와 기도지향들은 발현 목격증인에게 전달하여 성모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5. 선교회로 친지와 가족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평화의 모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6. 모든 후원금은 성모님의 메시지 전파를 위한 사명에 사용되며 I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ies 후원안내

미국

P.O. Box 843, Ridgefield, NJ 07657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WELLS FARGO
 송금번호: ABA# (031201467) Acct.# (2000012394184)

www.qpmm.org / E-mail: qpmm.org@gmail.com
 Tel : (201) 945-4777 / CP (917) 626-4314 | 카톡 평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전화: _____ (CP) : _____ E-mail : _____

주소 : _____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제 75호 발행을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윤경, 강아그네스, 강신정, 강위순, 강윤순, 강미아, 광영신, 김건일, 김안나, 김정택,
 김종태, 김주, 김춘정, 김영옥, 김은영, 김덕호, 김부자, 김인순, 김경희, 김경순, 김혜림,
 김영희, 김정인, 김병순, 김막달레나, 김테레사, 김영호, 김제니, 김경미, 김미숙, 김인희,
 김수희, 김은희, 김덕수, 김영순, 김봉순, 김테레사, 김재문, 김지순, 김봉희, 김은순,
 김그라시아, 김마디아, 김미자, 김루시아, 김학실, 민명규, 민현희, 민명주, 마헬렌,
 문로사리아, 박영희, 박영화, 박경희, 박서영, 박수미, 박성준, 박은주, 박기용, 박지영,
 박낙주, 박현자, 박병래, 박종옥, 박광국, 박창서, 박신정, 박길재, 박정자, 박홍숙, 배달진,
 배태자, 백성자, 백윤영, 백수산나, 방옥순, 서주을, 서혜경, 신자영, 신연차, 신영서, 신태남,
 선우루까, 선우용근, 선우유식, 성부전, 송정자, 송마리아, 송현숙, 성유경, 송영, 성효진,
 성정미, 유춘옥, 유선애, 윤금순, 예수중, 안태현, 이배훈, 경희, 이명숙, 이테레사, 이옥영, 이울리,
 이영숙, 이경혜, 이경희, 이경애&이정구, 이순옥, 이순세, 이봉자, 이명자, 이명진, 이희원, 이황순, 이수자, 이근재,
 이은경, 이순주, 이덕희, 이진민, 이종천, 이종덕, 이인옥, 이영숙, 이아네스, 이윤영, 이옥화, 이정자, 이분숙, 이순세,
 이선희, 이순세, 이소자, 이성숙, 이승희, 이재화, 이혜전, 이일영, 이윤혜, 이준모, 이찬기, 이택, 오미경, 어명희,
 안용진, 안현의, 안정희, 임미정, 엄봉화, 장영희, 장득량, 정석우, 정금희, 정갑순, 정계숙, 정원숙, 정낙숙, 정연숙,
 정대철, 정명자, 정윤미, 정지나, 정금희, 조안나, 조동진, 조민현, 조영랑, 지영식, 지요경, 지영덕, 지주디, 진정완,
 진은필, 진베로니카, 진도미니까, 진세실리아 벨라벳다, 진안젤라, 주순덕, 전현숙, 전영자, 장미심, 장봉석, 장춘옥,
 차정애, 차로사, 최진옥, 최동숙, 최혜선, 최윤주, 최인순, 최봉열, 최스테파노, 최메리엔, 최익기, 최다예, 최현수,
 최영자, 최명자, 최선화, 최한나, 최종권, 최완주, 최현주, 최두옥, 허테레사, 허명선, 허균영, 한만섭, 한영주, 한정아,
 한정애, 홍연수, 홍상근, 홍제시카, 표한경, 표한화, 태영균, 도우정, 노순옥, 육태수, 익명

Paul Chul, John R McFadden, Dongho Chae, Brigid M Kernan, Joseph Philip Britt, Donna Maria Ottaviano,
 Joseph Anthony Murphy, Linda Murphy, Albert Joseph Woodring, Barbara Anne, Woodring,
 Dorothy Konowitz Fischer, Kathryn Anne Dunworth, William Edward Gunn, Matthew James Ziegmann,
 Cynthia B. ziegmann, Henry Yerger, Suk ja J Dunnigan, Soon Cha Meredith, Kim Joo, Jennie Maria Kim,
 Keun J. Lee, Sunnie Mercer, Kyusun Choe, Mark Annunziata, James W. Coker, Patrick J. Scalise,
 Pyong Ye Mullen, Jungah Kim Hahn, Paul Ryou, Tak U. Lee, Joung O. Lee, Soon Lee, Wenay Na, Insuk Mullins,
 Dohin Koo, KilWhan Cha, Dae Del Santo, Gerald Kim, Lee Soon Se, Paul J and Mary K Lee, Tae N. Shin,
 Goldland Jewelers, Soon Bang, Keeyang Park, Joseph Jong Park, Sun H. Lamb, Chung Shendelman,
 Joung Chui Ha, Choung S. Argueha, S. Park, Chung Shendelman, Sun Ingersiev, Louis & OksunKarasas

설터

예수님! 제게 늘 머물러 주십시오.
 세월은 더딘 것 같으나, 해는 벌써 저물어 갑니다. 우리 삶은 빨리 지나가고 죽음과 심판과
 영원은 우리에게 빨리 닥쳐오기 때문에 제가 도중에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늘 용기를
 내는 데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셔야 함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멍청멍청하는 동안에 죽음
 이 닥쳐옵니다. 어두움과 유혹과 무미건조함과 크고 작은 십자가들, 영혼 육신의 저 많은 고통과
 번민들이 닥쳐오는 이 귀향 살이 밤에, 주님, 제게 주님이 꼭 필요하오니 늘 제게 머물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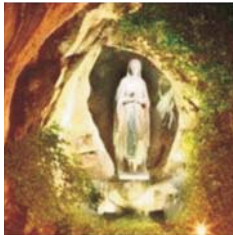


평화의 모후 선교회 성지 순례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기념 이태리 / 파티마 / 루르드 성모 성지 순례

- ▶ 2017년 9월 20일 ~ 30일 (10박 11일) / \$3,150 (뉴욕 JFK)
- ▶ 2017년 10월 25일 ~ 11월 4일 (10박 11일) / \$3,190 (뉴욕 JFK)



파티마 - 성모님 발현 기념 로사리아 대성당, 루시아 수녀, 성녀 히야친다, 성 프란치스코의 생가와 무덤참배, 촛불행렬, 십자가의 길, 성모님 발현장소에 세워진 기념경당, 속죄의 길, 베를린 장벽의 콘크리트벽, 십자가의 길, 미카엘 대천사가 성체를 모셔온 발현장소, 성모님께서 세 어린이에게 6번 발현하신 곳

루르드 - 성모님 발현 기념 성당, 촛불행렬, 발현동굴, 기적수침수, 벨라뎃따 성녀생가, 성체거동, 십자가의 길

이태리 -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 성 바오로 대성당, 라페란 요한 대성당, 성모 마리아 대성당, 성계단 성당, 산 조바니 로폰도, 분도 성인의 수비아고 동굴,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 마노펠로, 란치아노 성체 성혈 기적의 성당, 로레토의 성가정 성당, 성체 기적의 현상 임마누엘 수도원



- 메주고리에 순례 5일 추가 문의 -

메주고리에 - 성모님 발현산, 십자가산과 14처 묵상, 청십자가, 부활 청동상, 빛의 신비 묵주기도, 고 솔라브코 신부님 묘지, 메주고리에 어머니 마을, 티할리나 성모님, 체나콜로 공동체 체험당, 메주고리에 본당의 치유 음악과 저녁예절, 묵주기도, 거룩한 미사, 평화의 기도, 성물 축성, 치유기도, 십자가 경배, 성체현시 성지간

슈르만치 - '하느님 자비의신심 성당'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축성하신 하느님 자비의 이콘 성화(하반신 불치병 환자를 치유한 기적의 이콘), 성녀 파우스티나, 성요한바오로 2세 유해 친구예절

드브로브닉 - 유럽의 진주 아름다운 크로아티아의 성곽 도시, 목의 치유성인 브라시오에게 봉헌된 1700년된 성 실바노 성인의 유해가 모셔진 성당, 예수회 수도원 성당, 아기에수님의 강보와 성 십자가 조각 및 많은 성인들의 유물이, (130명이상) 모셔진 주교좌 대성당등...



과달루페 성지 순례

2017년 11월 8일 ~ 12일 (4박 5일)
\$1,400 (JFK, IAD 공항)



거룩한 땅 요르단 및 이스라엘 성지 순례

2018년 3월 12일 ~ 22일 (10박 11일)
\$2,750 (뉴욕 JFK공항 출발)

에리코(유혹의 산 엘리사셈), 요르단강 세레터, 사해, 꿈란유적, 요르단 계곡, 갈릴래아 호수, 가파르나움, 타브가, 빵의 기적성당, 베드로 수 위권 성당, 행복선언 성당, 벳사이다 예수님의 배 승선, 카이사리아 필리피, 바나야스 폭포, 가나의 혼인 잔치 기념성당, 나자렛 성모 영보 성당 성가정 성당, 회당성당, 세포리유적 (갈릴래아의 수도 헬레니 즈의 중심지), 이즈르엘 평야, 아인케렘 성모님 엘리사벳 방문성당, 세레자 요한탄생 성당, 예루살렘, 올리브산, 승천 기념장소, 주님의 기도문 성당, 눈물성당, 갯세마니 대성전, 사도들 동굴성당 키드론 계곡, 베들레헴 성탄성당, 목자의 들판성당, 십자가의 길, 골고다, 성묘 대성전, 시온산, 최후의 만찬장소, 성모님 영면성당, 베드로 회개성당 (갈리칸투)

메주고리에 / 슈르만치 / 드브로브닉 성지순례

\$850 + 왕복항공료 / 8박 9일 수시출발 일정문의

문의 T. 201-945-4777 C : 917-626-4314 www.qpmm.org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무료보급과 "신앙체험을 위한 성지순례" 사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체입니다.